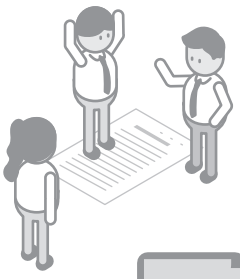
세미나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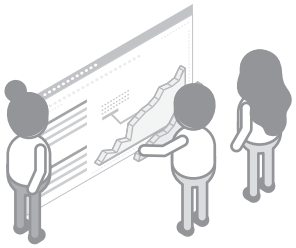
1948~1979년 제주학 연재 기사 연구 결과 발표 세미나

2025. 10. 30.(목) 15:30~18:00

제주연구원 새별오름(2층)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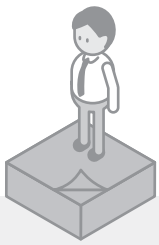




1948~1979년 제주학 연재 기사 연구 결과 발표 세미나

2025. 10. 30.(목) 15:30~18:00

제주연구원 새별오름(2층)



세부 행사 계획

시간	항목	내용
15:00~15:30 (30분)	**등록**	참가자 행사 등록
15:30~15:40 (10분)	**개회식**	개회사 / 사진 촬영 사회: 오유정(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5:40~16:20 (40분)	**주제 발표**	❶ 〈1948~1979년 제주학 연재 기사 연구〉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안 – 이정원(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위원) ❷ 보는 아카이브, 찾는 역사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 이현주(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장)
16:20~16:30 (10분)	**자리 정돈**	토론 자리 정돈 및 휴식
16:30~17:50 (80분)	**종합 토론**	좌장: 양영수(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 – 최낙진(제주대학교 교수) – 강문규(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이사 / 전 한라일보 논설실장) – 이정효(제주대학교 도서관 학술정보운영실장) – 임희숙(제주도서관 기획운영실장) – 김승종(제주일보 논설실장)
18:00~	**저녁 식사**	

| 주최 |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주제발표 1

〈1948~1979년 제주학 연재 기사 연구〉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안

이 정 원

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위원

<1948~1969년 제주학 연재 기사 연구>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안

이정원
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위원

Ⅰ. 서론

- 제주학 계보를 탐색할 때, 국내 최초로 전국 규모의 지역학 연구를 수행한 <제주도연구회>가 1978년 창립되었음. 연구회는 문학, 인류학, 민속학, 지리학, 역사학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음. 이후 1996년에 <제주도연구회>의 이름을 <제주학회>로 변경한 후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음.
- 제주학의 계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해방 이후부터 <제주도연구회> 창립 당시인 1979년까지 발간된 제주 지역 신문에 수록된 제주학 연재 기사들을 수집, 정리함.
-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 등을 종합하여 1948년부터 1979년까지 제주 지역 신문에 수록된 제주학 연재 기사들을 수집, 정리하는 연구를 수행함.
- 제주학과 지역 언론의 상관성 연구를 통해 제주학 기록 매체로서 지역 신문의 가치를 새롭게 규명함. 현재 보존된 과거 제주 지역 신문들을 학문적으로 활용, 계승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연구도 진행함.
- 이를 통해 시기별로 나타난 제주학 연재 기사들의 주제와 분야, 주요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기사를 작성한 제주학 선구자들의 성취를 조명함.
- 연구 시기는 해방 이후인 1948년부터 <제주도연구회> 창립 당시인 1979년까지임.
- 연구 대상은 1948~1979년 <제주신보>(이후 제주신문, 현 제주일보로 명칭 변경)에 수록된 제주학 연재 기사임.
- 연구 방법은 연구 시기에 해당하는 제주신보·제주신문 기사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제주학 분야와 연관 있는 연재 기사 확인함.
- 기사 수집 및 정리 기준인 경우 기사 주제는 제주학 연구 분야인 문화, 역사, 민속, 제주어, 자연 주제 기사 중심 수집, 정리함. 여러 분야를 융·복합해 제주학을 총체적으로 고찰한 기사는 '인문'으로 분류하였음.
- 필자는 이름을 공개한 연재 기사 중심 수집, 정리함. 연재 횟수는 2회 이상 연재 기사 중심 수집, 정리함.

Ⅱ. 연구 현황

■ 제주학 연구에서 신문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대표적으로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역사자료총서《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총 6권을 발간함. 조사된 신문사는 동아일보와 일본어 신문, 시대일보, 신한민보, 조선중앙일보, 중앙일보, 중외일보, 조선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보 등 총 10개임. 연구는 제주학 연구와 제주학의 대중화를 위한 기초적인 원문 자료의 수집과 정리,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음. 제주역사 연구의 공백기인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1차 사료로서 당대 신문에 게재된 제주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정리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신문의 지역학·기록학적 가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동시에 신문을 활용한 지역학 연구는 지역학과 더불어 언론학 연구 영역의 확장에도 기여함. 또한 지역학과 언론학의 융·복합을 통해 지역 문화와 역사, 민속, 언어 등의 가치를 다층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규명할 수 있음. 특히 학문 간 융·복합은 신문 기록을 지역학 연구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카이브 운영 당위성으로도 연결되기에 의미가 있음.

■ 제주학 연구에 있어서도 <제주신보>의 가치는 각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제주학 선구자로 평가받는 석주명의 기고문이 <제주신보>에 남겨져 있음. 석주명은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조선의 자태'라는 기고문을 <제주신보>에 기고하여 제주도를 연구하는 이유를 밝혔음. 기고에서 석주명은 한반도와 다른 제주의 자연이 우리 민족의 자산을 풍부하게 해주고 터전을 확장해준다고 평가하였음. 우리 문화의 옛 모습을 간직한 제주문화를 잘 보전하고 연구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문화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하였음. 또한 석주명은 제주신보에 기고한 '제주도청론(濟州島廳論)'에서 제주도는 다른 도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앙청 직속의 특별도청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음.

Ⅲ. 조사 결과 (요약)

1. 1948~1950년대 제주학 연재 기사 조사 결과

1-1. 전체 조사 결과

번호	일자	면	필자	기사 제목
1	1948.2.6.	1면	석주명	조선의 자태
2	1956.2.17.	2면	홍정표	본도향리의 고명 <1>
3	1956.2.18.	2면	홍정표	본도향리의 고명 <2>
4	1957.7.6.	2면	김태능	내 고장 유래-잠수기업 창시와 가파도<상>

5	1957.7.7.	2면	김태능	내 고장 유래-잠수기업 창시와 가파도<중>
6	1957.7.9.	2면	김태능	내 고장 유래-잠수기업 창시와 가파도<완>
7	1958.5.13.	2면	장태언	내 고장 민요 음미 <상>
8	1958.5.14.	2면	장태언	내 고장 민요 음미 <하>
9	1958.5.15.	2면	장태언	내 고장 민요 음미 <완>
10	1958.7.5.	2면	홍정표	제주도 민요의 개요 <1>
11	1958.7.6.	2면	홍정표	제주도 민요의 개요 <2>
12	1958.7.8.	2면	홍정표	제주도 민요의 개요 <3>
13	1958.7.9.	2면	홍정표	제주도 민요의 개요 <4>
14	1958.7.10.	2면	홍정표	제주도 민요의 개요 <5>
15	1958.7.11.	2면	홍정표	제주도 민요의 개요 <6>
16	1958.7.12.	2면	홍정표	제주도 민요의 개요 <7>
17	1958.7.13.	2면	홍정표	제주도 민요의 개요 <8>
18	1958.7.15.	2면	홍정표	제주도 민요의 개요 <9>
19	1958.7.17.	2면	홍정표	제주도 민요의 개요 <10>
20	1958.7.18.	2면	홍정표	제주도 민요의 개요 <11>
21	1958.8.7.	2면	홍정표	제주도 민요의 개요 <12>
22	1958.8.8.	2면	홍정표	제주도 민요의 개요 <완>
23	1958.7.29	2면	최학근	가름의 어원에 대해서 <상>
24	1958.7.30.	2면	최학근	가름의 어원에 대해서 <하>
25	1959.5.12.	2면	김태능	탐라와 삼별초 <1>
26	1959.5.13.	2면	김태능	탐라와 삼별초 <2>
27	1959.5.15.	2면	김태능	탐라와 삼별초 <3>
28	1959.5.16.	2면	김태능	탐라와 삼별초 <4>
29	1959.5.17	2면	김태능	탐라와 삼별초 <5>
30	1959.5.19	2면	김태능	탐라와 삼별초 <6>
31	1959.5.20.	2면	김태능	탐라와 삼별초 <7>
32	1959.5.21.	2면	김태능	탐라와 삼별초 <8>
33	1959.5.23.	2면	김태능	탐라와 삼별초 <완>
34	1959.6.13.	2면	김태능	삼별초난 속고-제주도에 끼친 영향 <1>
35	1959.6.14	2면	김태능	삼별초난 속고-제주도에 끼친 영향 <2>
36	1959.6.18.	2면	김태능	삼별초난 속고-제주도에 끼친 영향 <3>
37	1959.6.20.	2면	김태능	삼별초난 속고-제주도에 끼친 영향 <4>
38	1959.6.21.	2면	김태능	삼별초난 속고-제주도에 끼친 영향 <5>
39	1959.6.24.	2면	김태능	삼별초난 속고-제주도에 끼친 영향 <6>

40	1959.6.26.	2면	김태능	삼별초난 속고-제주도에 끼친 영향 <완>
41	1959.7.18.	2면	김태능	몽고의 탐라지배와 최영장군의 목호토벌 <1>
42	1959.7.21.	2면	김태능	몽고의 탐라지배와 최영장군의 목호토벌 <2>
43	1959.7.22.	2면	김태능	몽고의 탐라지배와 최영장군의 목호토벌 <3>
44	1959.7.23.	2면	김태능	몽고의 탐라지배와 최영장군의 목호토벌 <4>
45	1959.7.24.	2면	김태능	몽고의 탐라지배와 최영장군의 목호토벌 <5>
46	1959.7.25.	2면	김태능	몽고의 탐라지배와 최영장군의 목호토벌 <6>
47	1959.7.26.	2면	김태능	몽고의 탐라지배와 최영장군의 목호토벌 <7>
48	1959.7.28.	2면	김태능	몽고의 탐라지배와 최영장군의 목호토벌 <8>
49	1959.7.29.	2면	김태능	몽고의 탐라지배와 최영장군의 목호토벌 <9>
50	1959.7.30.	2면	김태능	몽고의 탐라지배와 최영장군의 목호토벌 <10>
51	1959.7.31.	2면	김태능	몽고의 탐라지배와 최영장군의 목호토벌 <11>
52	1959.8.1.	2면	김태능	몽고의 탐라지배와 최영장군의 목호토벌 <완>
53	1959.10.6.	2면	박용후	우리말 방언에 있어서 제주방언의 위치 <1>
54	1959.10.7.	2면	박용후	우리말 방언에 있어서 제주방언의 위치 <2>
55	1959.10.8.	2면	박용후	우리말 방언에 있어서 제주방언의 위치 <3>
56	1959.10.9.	2면	박용후	우리말 방언에 있어서 제주방언의 위치 <4>
57	1959.10.10.	2면	박용후	우리말 방언에 있어서 제주방언의 위치 <5>
58	1959.10.13.	2면	박용후	우리말 방언에 있어서 제주방언의 위치 <6>
59	1959.10.20.	2면	김태능	파랑도에 대한 이견 <상>
60	1959.10.21.	2면	김태능	파랑도에 대한 이견 <중>
61	1959.10.22.	2면	김태능	파랑도에 대한 이견 <완>
62	1959.11.7.	2면	김태능	전등집어에 의한 모슬포 지방의 며루치 어업 <1>
63	1959.11.8.	2면	김태능	전등집어에 의한 모슬포 지방의 며루치 어업 <2>
64	1959.11.10.	2면	김태능	전등집어에 의한 모슬포 지방의 며루치 어업 <완>
65	1959.12.4.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1>
66	1959.12.6.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2>
67	1959.12.8.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3>
68	1959.12.9.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4>
69	1959.12.12.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5>
70	1959.12.13.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6>
71	1959.12.15.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7>
72	1959.12.16.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8>
73	1959.12.17.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9>
74	1959.12.18.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10>

1-2. 필자별 정리

필자	집필 주제 건수	기사 주제
김태능	7	내 고장 유래-잠수기업 창시와 가파도
		탐라와 삼별초
		삼별초난 속고
		몽고의 탐라지배
		파랑도에 대한 이견
		전등집어에 의한 모슬포 지방의 며루치 작업
		탐라향토사
홍정표	2	본도향리의 고명
		제주도 민요의 개요
박용후	1	우리말 방언에 있어서 제주방언의 위치
장태언	1	내 고장 민요 음미
최학근	1	가름의 어원에 대해서
석주명	1	조선의 자태

1-3. 연재 분야별 정리

연재분야	건수	연재 주제
역사	7	내 고장 유래-잠수기업 창시와 가파도
		탐라와 삼별초
		삼별초난 속고
		몽고의 탐라지배
		파랑도에 대한 이견
		전등집어에 의한 모슬포 지방의 며루치 작업
		탐라향토사
제주어	3	본도향리의 고명

		우리말 방언에 있어서 제주방언의 위치
		가름의 어원에 대해서
민속	2	내 고장 민요 음미
		제주도 민요의 개요
인문	1	조선의 자태

2. 1960년대 제주학 연재 기사 조사 결과

2-1. 전체 조사 결과

번호	일자	면	필자	기사제목
1	1960.1.5.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11>
2	1960.1.6.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12>
3	1960.1.7.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13>
4	1960.1.8.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14>
5	1960.1.9.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15>
6	1960.1.10.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16>
7	1960.1.12.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17>
8	1960.1.13.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18>
9	1960.1.15.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19>
10	1960.1.16.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20>
11	1960.1.17.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21>
12	1960.1.19.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22>
13	1960.1.20.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23>
14	1960.1.21.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24>
15	1960.1.24.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25>
16	1960.1.26.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26>
17	1960.1.27.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27>
18	1960.1.28.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28>
19	1960.1.29.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29>
20	1960.1.30.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30-1>

21	1960.2.6.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30-2>
22	1960.2.7.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31>
23	1960.2.9.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32>
24	1960.2.10.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33>
25	1960.2.14.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34>
26	1960.2.16.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35>
27	1960.2.17.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36>
28	1960.2.27.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37>
29	1960.2.28.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38>
30	1960.3.9.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39>
31	1960.3.10.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40>
32	1960.3.11.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41>
33	1960.3.12.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42>
34	1960.3.13.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43-1>
35	1960.3.14.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43-2>
36	1960.3.15.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44>
37	1960.3.16.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45>
38	1960.3.17.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46>
39	1960.3.18.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47>
40	1960.3.19.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48>
41	1960.3.20.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49>
42	1960.3.22.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50>
43	1960.3.23.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51>
44	1960.3.24.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52>
45	1960.3.25.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53>
46	1960.4.3.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54>
47	1960.4.5.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55>
48	1960.4.13.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57>
49	1960.4.14.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58>
50	1960.4.16.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60>
51	1960.4.19.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61>
52	1960.4.20.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62>
53	1960.4.21.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63>
54	1960.5.13.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65>

55	1960.5.14.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66>
56	1960.5.18.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67>
57	1960.5.21.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68>
58	1960.6.4.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69>
59	1960.6.12.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70>
60	1960.6.15.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71>
61	1960.6.18.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72>
62	1960.8.14.	2면	김태능	탐라향토사 <73>
63	1962.10.5.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1>
64	1962.10.7.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2>
65	1962.10.10.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3>
66	1962.10.12.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4>
67	1962.10.14.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5-1>
68	1962.10.17.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5-2>
69	1962.10.19.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7>
70	1962.10.21.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8>
71	1962.10.23.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9>
72	1962.10.25.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10>
73	1962.10.26.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11>
74	1962.10.30.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12>
75	1962.10.31.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13>
76	1962.11.1.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14>
77	1962.11.2.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15>
78	1962.11.3.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16>
79	1962.11.7.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19>
80	1962.11.10.	4면	김태능	사화 성교란 <완>
81	1962.11.25.	4면	부종휴	제주도 풍물과 고사 <1>
82	1962.11.27.	4면	부종휴	제주도 풍물과 고사 <2>
83	1962.11.29.	4면	부종휴	제주도 풍물과 고사 <3>
84	1962.12.2.	4면	부종휴	제주도 풍물과 고사 <4>
85	1962.12.4.	4면	부종휴	제주도 풍물과 고사 <5>
86	1962.12.5.	4면	부종휴	제주도 풍물과 고사 <6>
87	1962.12.7.	4면	부종휴	제주도 풍물과 고사 <8>
88	1962.12.9.	4면	부종휴	제주도 풍물과 고사 <9>

89	1963.8.8.	4면	진성기	허웅아기 <1>
90	1963.8.9.	4면	진성기	허웅아기 <2>
91	1963.7.4.	4면	암고란	탐라의 재발견 <1>
92	1963.7.11.	4면	암고란	탐라의 재발견 <2>
93	1963.7.18.	4면	암고란	탐라의 재발견 <3>
94	1963.7.25.	4면	암고란	탐라의 재발견 <4>
95	1963.8.8.	4면	암고란	탐라의 재발견 <6>
96	1963.8.15.	4면	암고란	탐라의 재발견 <7>
97	1963.8.22.	4면	암고란	탐라의 재발견 <8>
98	1963.9.5.	4면	암고란	탐라의 재발견 <10-1>
99	1963.9.19.	4면	암고란	탐라의 재발견 <10-2>
100	1963.9.26.	4면	암고란	탐라의 재발견 <12>
101	1963.10.10.	4면	암고란	탐라의 재발견 <13>
102	1963.10.31.	4면	암고란	탐라의 재발견 <14>
103	1963.11.21.	4면	암고란	탐라의 재발견 <15>
104	1963.9.5.	4면	김영돈	제주도민의 기질 <1>
105	1963.9.6.	4면	김영돈	제주도민의 기질 <2>
106	1963.9.9.	4면	김영돈	제주도민의 기질 <3>
107	1963.9.10.	4면	김영돈	제주도민의 기질 <4>
108	1963.9.12.	4면	김영돈	제주도민의 기질 <끝>
109	1963.9.9.	4면	진성기	제주도의 전설 순례 <3>
110	1963.9.15.	4면	진성기	제주도의 전설 순례 <4>
111	1963.9.22.	4면	진성기	제주도의 전설 순례 <5>
112	1963.10.13.	4면	진성기	제주도의 전설 순례 <6>
113	1963.10.20.	4면	진성기	제주도의 전설 순례 <7>
114	1964.1.5.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2>
115	1964.1.7.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3>
116	1964.1.8.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4>
117	1964.1.9.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5>
118	1964.1.10.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6>
119	1964.1.11.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7>
120	1964.1.12.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8>
121	1964.1.14.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9>
122	1964.1.16.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11>

123	1964.1.17.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12>
124	1964.1.18.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13>
125	1964.1.19.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14>
126	1964.1.21.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15>
127	1964.1.22.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16>
128	1964.1.23.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17>
129	1964.1.24.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18>
130	1964.1.25.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19>
131	1964.1.28.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21>
132	1964.1.29.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22>
133	1964.1.30.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23>
134	1964.1.31.	3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24>
135	1964.2.1.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25>
136	1964.2.2.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26>
137	1964.2.4.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27>
138	1964.2.6.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28>
139	1964.2.8.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29>
140	1964.2.9.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30>
141	1964.2.11.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31>
142	1964.2.13.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32>
143	1964.2.15.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33>
144	1964.2.16.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34>
145	1964.2.18.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35>
146	1964.2.20.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36>
147	1964.2.22.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37>
148	1964.2.25.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38>
149	1964.2.26.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39>
150	1964.2.27.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40>
151	1964.2.29.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41>
152	1964.3.1.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42>
153	1964.3.3.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43>
154	1964.3.7.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45>
155	1964.3.8.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46>
156	1964.3.10.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47>

157	1964.3.12.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48>
158	1964.3.13.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49>
159	1964.3.14.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50>
160	1964.3.15.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51>
161	1964.3.17.	4면	김태능	제주의 유적인들 <완>
162	1964.4.28.	4면	김태능	고구마 전래와 주변 <1>
163	1964.4.29.	4면	김태능	고구마 전래와 주변 <2>
164	1964.4.30.	4면	김태능	고구마 전래와 주변 <3>
165	1964.5.1.	4면	김태능	고구마 전래와 주변 <4>
166	1964.5.2.	4면	김태능	고구마 전래와 주변 <5>
167	1964.5.5.	4면	김태능	고구마 전래와 주변 <완>
168	1964.5.10.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1>
169	1964.5.12.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2>
170	1964.5.13.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3>
171	1964.5.15.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4>
172	1964.5.17.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6>
173	1964.5.19.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7>
174	1964.5.20.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8>
175	1964.5.21.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9>
176	1964.5.22.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10>
177	1964.5.23.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11>
178	1964.5.24.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12>
179	1964.5.26.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13>
180	1964.5.27.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14>
181	1964.5.28.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15>
182	1964.5.29.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16>
183	1964.5.30.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17>
184	1964.5.31.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18>
185	1964.6.3.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19>
186	1964.6.4.	4면	송석범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20>
187	1964.6.5.	4면	이봉준	민속놀이 순방 <1>
188	1964.6.6.	4면	이봉준	민속놀이 순방 <2>
189	1964.6.7.	4면	이봉준	민속놀이 순방 <3>
190	1964.6.10.	4면	이봉준	민속놀이 순방 <4>

191	1964.6.11.	4면	이봉준	민속놀이 순방 <5>
192	1964.6.12.	4면	이봉준	민속놀이 순방 <6>
193	1964.6.13.	4면	이봉준	민속놀이 순방 <7>
194	1964.6.16.	4면	이봉준	민속놀이 순방 <8>
195	1964.6.18.	4면	이봉준	옛것을 간직한 사람들 <1>
196	1964.6.19.	4면	이봉준	옛것을 간직한 사람들 <2>
197	1964.6.20.	4면	이봉준	옛것을 간직한 사람들 <3>
198	1964.6.24.	4면	이봉준	옛것을 간직한 사람들 <4>
199	1964.6.25.	4면	이봉준	옛것을 간직한 사람들 <5>
200	1964.6.27.	4면	이봉준	조상들이 남긴 옛 구술들 <1>
201	1964.6.28.	4면	이봉준	조상들이 남긴 옛 구술들 <2>
202	1964.7.4.	4면	이봉준	조상들이 남긴 옛 구술들 <4>
203	1964.7.8.	4면	이봉준	조상들이 남긴 옛 구술들 <5>
204	1964.7.17.	4면	이봉준	조상들이 남긴 옛 구술들 <6>
205	1964.8.8.	4면	이봉준	조상들이 남긴 옛 구술들 <8>
206	1964.8.12.	4면	이봉준	조상들이 남긴 옛 구술들 <9>
207	1964.8.15.	4면	이봉준	조상들이 남긴 옛 구술들 <10>
208	1964.8.18.	4면	이봉준	조상들이 남긴 옛 구술들 <11>
209	1964.8.19.	4면	이봉준	조상들이 남긴 옛 구술들 <12>
210	1964.8.29.	4면	이봉준	조상들이 남긴 옛 구술들 <13>
211	1964.9.8.	4면	이봉준	조상들이 남긴 옛 구술들 <14>
212	1964.6.28.	4면	김태능	명의 흥기와 제주와의 관계 <1>
213	1964.6.30.	4면	김태능	명의 흥기와 제주와의 관계 <2>
214	1964.7.2.	4면	김태능	명의 흥기와 제주와의 관계 <4>
215	1964.7.3.	4면	김태능	명의 흥기와 제주와의 관계 <5>
216	1964.7.4.	4면	김태능	명의 흥기와 제주와의 관계 <6>
217	1964.7.21.	4면	김태능	표식적 화산인 송악산 <상>
218	1964.7.23.	4면	김태능	표식적 화산인 송악산 <하>
219	1964.7.24.	4면	이숭녕	본도의 학문적 위치 <상>
220	1964.7.25.	4면	이숭녕	본도의 학문적 위치 <하>
221	1964.7.26.	4면	정한숙	본도의 민속과 문학 <상>
222	1964.7.28.	4면	정한숙	본도의 민속과 문학 <중>
223	1964.7.29.	4면	정한숙	본도의 민속과 문학 <하>
224	1964.8.8.	4면	김태능	제주도사와 그 문제점 <2>

225	1964.8.12.	4면	김태능	제주도사와 그 문제점 <5>
226	1964.8.13.	4면	김태능	제주도사와 그 문제점 <완>
227	1964.9.15.	4면	김태능	한라산 갓대의 결실고사에 유감 <상>
228	1964.9.16.	4면	김태능	한라산 갓대의 결실고사에 유감 <하>
229	1964.10.29.	4면	김태능	목사 허정 <1>
230	1964.10.30.	4면	김태능	목사 허정 <2>
231	1964.11.26.	4면	김태능	성교란 사건과 삼장두의 공술내용 <1>
232	1964.11.27.	4면	김태능	성교란 사건과 삼장두의 공술내용 <2>
233	1964.11.29.	4면	김태능	성교란 사건과 삼장두의 공술내용 <3>
234	1964.12.2.	4면	김태능	성교란 사건과 삼장두의 공술내용 <4>
235	1964.12.13.	4면	김태능	제주풍토기 <1>
236	1964.12.16.	4면	김태능	제주풍토기 <2>
237	1964.12.17.	4면	김태능	제주풍토기 <3>
238	1964.12.18.	4면	김태능	제주풍토기 <4>
239	1964.12.20.	4면	김태능	제주풍토기 <5>
240	1964.12.22.	4면	김태능	제주풍토기 <6>
241	1964.12.23.	4면	김태능	제주풍토기 <완>
242	1965.4.2.	4면	김태능	범섬 등반기 <1>
243	1965.4.4.	4면	김태능	범섬 등반기 <2>
244	1965.4.6.	4면	김태능	범섬 등반기 <3>
245	1965.4.7.	4면	김태능	범섬 등반기 <4>
246	1965.4.9.	4면	김태능	범섬 등반기 <5>
247	1965.4.11.	4면	김태능	범섬 등반기 <6>
248	1965.4.13.	4면	김태능	범섬 등반기 <7>
249	1965.4.14.	4면	김태능	범섬 등반기 <완>
250	1965.5.4.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1>
251	1965.5.5.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2>
252	1965.5.6.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3>
253	1965.5.7.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4>
254	1965.5.9.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5>
255	1965.5.11.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6>
256	1965.5.12.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7>
257	1965.5.13.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8>
258	1965.5.14.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9>

259	1965.5.16.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10>
260	1965.5.18.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11>
261	1965.5.19.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12-1>
262	1965.5.20.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12-2>
263	1965.5.21.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14>
264	1965.5.25.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15>
265	1965.5.26.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16>
266	1965.5.27.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17>
267	1965.5.28.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18>
268	1965.5.30.	4면	진성기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완>
269	1965.7.22.	4면	김태능	한국 최남단 마라도 <1>
270	1965.7.23.	4면	김태능	한국 최남단 마라도 <2>
271	1965.7.24.	4면	김태능	한국 최남단 마라도 <3>
272	1965.7.27.	4면	김태능	한국 최남단 마라도 <4>
273	1965.7.28.	4면	김태능	한국 최남단 마라도 <5>
274	1965.7.30.	4면	김태능	한국 최남단 마라도 <7>
275	1966.3.9.	4면	고대종	삼성혈의 명칭과 도민제의 의의 <상>
276	1966.3.10.	4면	고대종	삼성혈의 명칭과 도민제의 의의 <중>
277	1966.3.11.	4면	고대종	삼성혈의 명칭과 도민제의 의의 <하>
278	1966.6.6.	4면	이근	제주도인의 인간상 <상>
279	1966.6.7.	4면	이근	제주도인의 인간상 <중>
280	1966.6.8.	4면	이근	제주도인의 인간상 <하>
281	1967.7.10.	4면	송석범	제주시 문화재-관광자원
282	1967.7.17.	4면	송석범	제주시문화재-수정사지 등
283	1969.2.10.	4면	현용준	제주도 문제 심포지움-제주도 무격의 특성
284	1969.2.11.	4면	부종휴	제주도 문제 심포지움-제주도 식물의 분포와 식생 연속
285	1969.2.12.	4면	이기휴	수복신이 산다는 노인성 <1>
286	1969.2.13.	4면	이기휴	수복신이 산다는 노인성 <2>
287	1969.4.3.	4면	진성기	제주도민과 농어촌의 생활 <1>
288	1969.4.4.	4면	진성기	제주도민과 농어촌의 생활 <2>
289	1969.4.5.	4면	진성기	제주도민과 농어촌의 생활 <3>
290	1969.12.4.	4면	김익주	이조 말 정치 난류의 대변자 <1>
291	1969.12.5.	4면	김익주	이조 말 정치 난류의 대변자 <2>
292	1969.12.8.	4면	김익주	이조 말 정치 난류의 대변자 <3>

2-2. 필자별 정리

필자	집필 주제 건수	기사 주제
김태능	13	탐라향토사
		사화 성교란
		제주의 유적인들
		고구마 전래와 주변
		명의 흥기와 제주와의 관계
		표식적 화산인 송악산
		제주도사와 그 문제점
		한라산 갓대의 결실고사에 유감
		목사 허정
		성교란 사건과 삼장두의 공술내용
		제주풍토기
		범섬 등반기
		한국 최남단 마라도
진성기	4	허웅아기
		제주도의 전설 순례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제주도민과 농어촌의 생활
이봉준	3	민속놀이 순방
		옛것을 간직한 사람들
		조상들이 남긴 옛 구술들
부종휴	2	제주도 풍물과 고사
		제주도 식물의 분포와 식생 연속
송석범	2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제주시 문화재

고대종	1	삼성혈의 명칭과 도민제의 의의
김영돈	1	제주도민의 기질
김익주	1	이조 말 정치 난류의 대변자
암고란	1	탐라의 재발견
이기휴	1	수복신이 산다는 노인성
이근	1	제주도인의 인간상
이숭녕	1	본도의 학문적 위치
정한숙	1	본도의 민속과 문학
현용준	1	제주도 무격의 특성

2-3. 연재 분야별 정리

연재분야	건수	연재 주제
역사	20	탐라향토사
		사화 성교란
		제주의 유적인들
		고구마 전래와 주변
		명의 흥기와 제주와의 관계
		표식적 화산인 송악산
		제주도사와 그 문제점
		한라산 갓대의 결실고사에 유감
		목사 허정
		성교란 사건과 삼장두의 공술내용
		제주풍토기
		범섬 등반기
		한국 최남단 마라도
		옛것을 간직한 사람들
		조상들이 남긴 옛 구술들
		제주도 풍물과 고사

		사람은 가도 자취는 영원
		제주시 문화재
		삼성혈의 명칭과 도민제의 의의
		이조 말 정치 난류의 대변자
민속	9	허웅아기
		제주도의 전설 순례
		민속물에 비친 도민의 생태
		제주도민과 농어촌의 생활
		민속놀이 순방
		탐라의 재발견
		수복신이 산다는 노인성
		본도의 민속과 문학
		제주도 무격의 특성
인문	3	제주도민의 기질
		본도의 학문적 위치
		제주도인의 인간상
자연	1	제주도 식물의 분포와 식생 연속

3. 1970년대 제주학 연재 기사 조사 결과

3-1. 전체 조사 결과

번호	일자	면	필자	기사제목
1	1970.2.26.	4면	진성기	오돌또기와 김복수 <상>
2	1970.2.27.	4면	진성기	오돌또기와 김복수 <하>
3	1970.3.7.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1>
4	1970.3.14.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2>
5	1970.3.21.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3>
6	1970.3.28.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4>

7	1970.4.4.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5>
8	1970.4.11.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6>
9	1970.4.18.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7>
10	1970.4.25.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9>
11	1970.5.2.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10>
12	1970.5.9.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11>
13	1970.5.16.	3면	문충성	제주민의 얼 <12-1>
14	1970.5.23.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12-2>
15	1970.6.6.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15>
16	1970.6.13.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16>
17	1970.6.20.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17>
18	1970.7.4.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18-1>
19	1970.7.11.	3면	문충성	제주민의 얼 <18-2>
20	1970.7.18.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19>
21	1970.7.25.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20>
22	1970.8.1.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21>
23	1970.8.8.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22>
24	1970.8.15.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23>
25	1970.8.22.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24>
26	1970.8.29.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25>
27	1970.9.5.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26>
28	1970.9.12.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27>
29	1970.9.19.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28>
30	1970.9.26.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29>
31	1970.10.3.	3면	오성찬	제주민의 얼 <30>
32	1970.3.26.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1>
33	1970.3.27.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34	1970.3.31.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3>
35	1970.4.2.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4-1>
36	1970.4.3.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4-2>
37	1970.4.6.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5>
38	1970.4.8.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6>
39	1970.4.9.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7>
40	1970.4.10.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8>
41	1970.4.13.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9-1>
42	1970.4.14.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9-2>
43	1970.4.16.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11>
44	1970.4.17.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12>
45	1970.4.20.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13>

46	1970.4.21.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14>
47	1970.4.23.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15>
48	1970.4.24.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16>
49	1970.4.27.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17>
50	1970.4.28.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18>
51	1970.4.30.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19>
52	1970.5.1.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0>
53	1970.6.5.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1>
54	1970.6.8.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2>
55	1970.6.9.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3>
56	1970.6.11.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5-1>
57	1970.6.12.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5-2>
58	1970.6.15.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6>
59	1970.6.16.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7>
60	1970.6.17.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8>
61	1970.6.18.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9>
62	1970.6.19.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10>
63	1970.6.22.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11>
64	1970.6.23.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12>
65	1970.6.25.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13>
66	1970.6.26.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14>
67	1970.6.29.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15>
68	1970.6.30.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16>
69	1970.7.2.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17>
70	1970.7.3.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18>
71	1970.7.6.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19>
72	1970.7.7.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20>
73	1970.7.8.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21>
74	1970.7.9.	4면	김태능	최부의 표해록 2 <22>
75	1970.8.27.	4면	김태능	김비의 일행의 류구 표류와 견문 <1>
76	1970.8.28.	4면	김태능	김비의 일행의 류구 표류와 견문 <2>
77	1970.8.31.	4면	김태능	김비의 일행의 류구 표류와 견문 <3>
78	1970.9.1.	4면	김태능	김비의 일행의 류구 표류와 견문 <4>
79	1970.9.2.	4면	김태능	김비의 일행의 류구 표류와 견문 <5>
80	1970.9.3.	4면	김태능	김비의 일행의 류구 표류와 견문 <6>
81	1970.9.4.	4면	김태능	김비의 일행의 류구 표류와 견문 <7>
82	1970.9.7.	4면	김태능	김비의 일행의 류구 표류와 견문 <8>
83	1970.9.8.	4면	김태능	김비의 일행의 류구 표류와 견문 <9>
84	1970.9.10.	4면	김태능	김비의 일행의 류구 표류와 견문 <10>

85	1970.9.11.	4면	김태능	김비의 일행의 류구 표류와 견문 <11>
86	1970.9.14.	4면	김태능	김비의 일행의 류구 표류와 견문 <12>
87	1970.9.15.	4면	김태능	김비의 일행의 류구 표류와 견문 <13>
88	1970.11.26.	4면	김태능	반(反)청한인들이 제주 표착 <1>
89	1970.11.27.	4면	김태능	반(反)청한인들이 제주 표착 <2>
90	1970.11.30.	4면	김태능	반(反)청한인들이 제주 표착 <3>
91	1970.12.1.	4면	김태능	반(反)청한인들이 제주 표착 <4>
92	1970.12.2.	4면	김태능	반(反)청한인들이 제주 표착 <5>
93	1970.12.3.	4면	김태능	반(反)청한인들이 제주 표착 <6>
94	1970.12.4.	4면	김태능	반(反)청한인들이 제주 표착 <10>
95	1970.12.7.	4면	김태능	반(反)청한인들이 제주 표착 <11>
96	1970.12.8.	4면	김태능	반(反)청한인들이 제주 표착 <12>
97	1971.1.7.	4면	김태능	해상사고로 본 청국과 제주 <1>
98	1971.1.8.	4면	김태능	해상사고로 본 청국과 제주 <2>
99	1971.1.11.	4면	김태능	해상사고로 본 청국과 제주 <3>
100	1971.1.12.	4면	김태능	해상사고로 본 청국과 제주 <4>
101	1971.9.28.	4면	조남권 편	도해록 <1>
102	1971.9.30.	4면	조남권 편	도해록 <2>
103	1971.10.1.	4면	조남권 편	도해록 <3>
104	1971.10.2.	4면	조남권 편	도해록 <4>
105	1971.10.4.	4면	조남권 편	도해록 <5>
106	1971.10.5.	4면	조남권 편	도해록 <6>
107	1971.10.7.	4면	조남권 편	도해록 <7>
108	1971.10.8.	4면	조남권 편	도해록 <8>
109	1971.10.11.	4면	조남권 편	도해록 <9>
110	1971.10.12.	4면	김태능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1>
111	1971.10.14.	4면	김태능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2>
112	1971.10.15.	4면	김태능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3>
113	1971.10.18.	4면	김태능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4>
114	1971.10.19.	4면	김태능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5>
115	1971.10.21.	4면	김태능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6>
116	1971.10.22.	4면	김태능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7>
117	1971.10.25.	4면	김태능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8>
118	1971.10.26.	4면	김태능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9>
119	1971.10.28.	4면	김태능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10>
120	1971.10.29.	4면	김태능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11>
121	1971.11.1.	4면	김태능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12>
122	1971.11.2.	4면	김태능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13>
123	1971.11.4.	4면	김태능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14>

124	1972.5.10.	4면	김태능	삼포왜노의 횡행과 목사 장림의 제주방어시설 <1>
125	1972.5.11.	4면	김태능	삼포왜노의 횡행과 목사 장림의 제주방어시설 <2>
126	1972.5.12.	4면	김태능	삼포왜노의 횡행과 목사 장림의 제주방어시설 <3>
127	1972.5.13.	8면	김태능	삼포왜노의 횡행과 목사 장림의 제주방어시설 <4>
128	1972.5.15.	4면	김태능	삼포왜노의 횡행과 목사 장림의 제주방어시설 <5>
129	1972.5.22.	4면	송상일	우리 것의 재조명 <1>
130	1972.5.29.	4면	송상일	우리 것의 재조명 <2>
131	1972.6.5.	4면	송상일	우리 것의 재조명 <3>
132	1972.6.12.	4면	송상일	우리 것의 재조명 <4>
133	1972.6.20.	4면	송상일	우리 것의 재조명 <5>
134	1972.6.27.	4면	송상일	우리 것의 재조명 <6>
135	1972.7.11.	4면	송상일	우리 것의 재조명 <7>
136	1972.12.9.	5면	신근철	제주감귤의 사적 고찰 <1>
137	1972.12.16.	5면	신근철	제주감귤의 사적 고찰 <2>
138	1972.12.23.	5면	신근철	제주감귤의 사적 고찰 <3>
139	1973.1.1.	3면	신근철	제주감귤의 사적 고찰 <4>
140	1973.1.18	5면	신근철	제주감귤의 사적 고찰 <5>
141	1973.7.19.	4면	홍순만	파랑섬은 따로 있다 <상>
142	1973.7.20.	4면	홍순만	파랑섬은 따로 있다 <하>
143	1973.9.29.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1>
144	1973.10.6.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2>
145	1973.10.13.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3>
146	1973.10.20.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4>
147	1973.10.27.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5>
148	1973.11.3.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6>
149	1973.11.10.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7>
150	1973.11.20.	4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8>
151	1973.11.24.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9>
152	1973.12.1.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10>
153	1973.12.8.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11>
154	1973.12.15.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12>
155	1973.12.22.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13>
156	1974.1.1.	9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14>
157	1974.1.12.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15>
158	1974.1.19.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16>
159	1974.1.26.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17>
160	1974.2.2.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18>

161	1974.2.23.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19>
162	1974.3.9.	3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20>
163	1974.4.20.	4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21>
164	1974.4.26.	4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22>
165	1974.5.3.	4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23>
166	1974.5.10.	4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24>
167	1974.5.17.	4면	홍순만	제주유적 1번지 <25>
168	1974.2.6.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1>
169	1974.2.7.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2>
170	1974.2.8.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3>
171	1974.2.9.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4>
172	1974.2.11.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5>
173	1974.2.12.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6>
174	1974.2.13.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7>
175	1974.2.14.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8>
176	1974.2.15.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9>
177	1974.2.16.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10>
178	1974.2.18.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11>
179	1974.2.19.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12>
180	1974.2.20.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13>
181	1974.2.21.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14>
182	1974.2.22.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15>
183	1974.2.23.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16>
184	1974.2.25.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17>
185	1974.3.2.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19>
186	1974.3.4.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20>
187	1974.3.5.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21>
188	1974.3.6.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22>
189	1974.3.7.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23>
190	1974.3.8.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24>
191	1974.3.9.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25>
192	1974.3.11.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26>
193	1974.3.12.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27>
194	1974.3.13.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28>
195	1974.3.14.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29>
196	1974.3.15.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30>
197	1974.3.18.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31>
198	1974.3.19.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32>
199	1974.3.20.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33>

200	1974.3.21.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34>
201	1974.3.22.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35>
202	1974.3.25.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36>
203	1974.3.26.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39-1>
204	1974.3.27.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39-2>
205	1974.3.28.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40>
206	1974.3.29.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41>
207	1974.4.1.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42>
208	1974.4.2.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43>
209	1974.4.3.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44>
210	1974.4.4.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45>
211	1974.4.8.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46>
212	1974.4.9.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47>
213	1974.4.10.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48-1>
214	1974.4.11.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48-2>
215	1974.4.12.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50>
216	1974.4.15.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51>
217	1974.4.16.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52>
218	1974.4.17.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53>
219	1974.4.20.	4면	진성기	제주 민속지 <54>
220	1974.6.5.	4면	윤양섭	제주도민의 종교관 <1>
221	1974.6.6.	4면	윤양섭	제주도민의 종교관 <2>
222	1974.6.7.	4면	윤양섭	제주도민의 종교관 <3>
223	1974.8.12.	4면	제주대 문화재연구회	성산읍 오조리 <1>
224	1974.8.13.	4면	제주대 문화재연구회	성산읍 오조리 <2>
225	1974.8.14.	4면	제주대 문화재연구회	성산읍 오조리 <3>
226	1974.8.15.	4면	제주대 문화재연구회	성산읍 오조리 <4>
227	1974.8.16.	4면	제주대 문화재연구회	성산읍 오조리 <5>
228	1974.8.20.	4면	제주대 문화재연구회	성산읍 오조리 <6-1>
229	1974.8.26.	4면	제주대 문화재연구회	성산읍 오조리 <6-2>
230	1974.8.27.	4면	제주대 문화재연구회	성산읍 오조리 <8>

231	1975.3.11.	4면	홍순만	제주 원주민은 어디서 왔나 <상>
232	1975.3.12.	4면	홍순만	제주 원주민은 어디서 왔나 <하>
233	1975.3.24.	4면	진성기	제주민과 민요 <상>
234	1975.3.25.	4면	진성기	제주민과 민요 <하>
235	1977.2.22.	4면	문선희	고성과 삼별초 <1>
236	1977.2.23.	4면	문선희	고성과 삼별초 <2>
237	1977.2.24.	4면	문선희	고성과 삼별초 <3>
238	1977.2.25.	4면	문선희	고성과 삼별초 <5>
239	1977.11.3.	4면	현길언	제주민의 의식 구조 <상>
240	1977.11.4.	4면	현길언	제주민의 의식 구조 <하>
241	1978.3.15.	3면	홍순만	비 <1>
242	1978.3.29.	3면	홍순만	비 <2>
243	1978.4.5.	3면	홍순만	비 <3>
244	1978.4.13.	3면	홍순만	비 <4>
245	1978.4.19.	3면	홍순만	비 <5>
246	1978.4.26.	3면	홍순만	비 <6>
247	1978.5.4.	3면	홍순만	비 <7>
248	1978.5.11.	3면	홍순만	비 <8>
249	1978.5.17.	3면	홍순만	비 <9>
250	1978.5.24.	3면	홍순만	비 <10>
251	1978.6.2.	3면	홍순만	비 <11>
252	1978.6.8.	3면	홍순만	비 <12>
253	1978.6.15.	3면	홍순만	비 <13>
254	1978.7.6.	3면	홍순만	비 <14>
255	1978.7.14.	3면	홍순만	비 <15>
256	1978.7.20.	3면	홍순만	비 <17>
257	1978.7.27.	3면	홍순만	비 <18-1>
258	1978.8.3.	3면	홍순만	비 <18-2>
259	1978.8.10.	3면	홍순만	비 <18-3>
260	1978.8.17.	3면	홍순만	비 <20>
261	1978.8.24.	3면	홍순만	비 <21>
262	1978.8.31.	3면	홍순만	비 <22>
263	1978.9.7.	3면	홍순만	비 <23>
264	1978.9.14.	3면	홍순만	비 <24>
265	1978.9.21.	3면	홍순만	비 <25>
266	1978.9.29.	3면	홍순만	비 <26>
267	1978.10.5.	3면	홍순만	비 <27>
268	1978.10.12.	3면	홍순만	비 <28>
269	1978.10.19.	3면	홍순만	비 <30>

270	1978.11.9.	3면	홍순만	비 <31>
271	1978.11.22.	3면	홍순만	비 <32>
272	1978.12.15.	3면	홍순만	비 <33>
273	1978.12.22.	3면	홍순만	비 <34>
274	1979.1.5.	3면	홍순만	비 <35>
275	1979.1.11.	3면	홍순만	비 <36>
276	1979.1.27.	3면	홍순만	비 <37>
277	1979.2.1.	3면	홍순만	비 <38>
278	1979.2.16.	3면	홍순만	비 <39>
279	1978.3.15.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아흔아홉골>
280	1978.3.18.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성산일출봉>
281	1978.3.29.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산방산>
282	1978.3.30.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군산>
283	1978.3.31.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두럭산>
284	1978.4.1.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비양도>
285	1978.4.3.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선문대 할망>
286	1978.4.4.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쇠죽은 못>
287	1978.4.5.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여우물>
288	1978.4.6.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백록담>
289	1978.4.8.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혼인지>
290	1978.4.10.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강초간물>
291	1978.4.11.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베락구룽>
292	1978.4.13.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고종달이1>
293	1978.4.14.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고종달이2>
294	1978.4.18.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용머리>
295	1978.4.19.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가릿뱅디>
296	1978.4.20.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오백장군>
297	1978.4.21.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말머리>
298	1978.4.24.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유반·무반석>
299	1978.4.26.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고성홍효자>
300	1978.5.1.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충효 박계곤>
301	1978.5.2.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홍노 오서자>
302	1978.5.6.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열녀국지>
303	1978.5.8.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절부암>
304	1978.5.9.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신촌 김택효부>
305	1978.5.10.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기건목사 1>
306	1978.5.11.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김명헌 참판>
307	1978.5.16.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기건목사 2>
308	1978.5.18.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오찰방 1>

309	1978.5.19.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오찰방 2>
310	1978.5.20.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감목관 김택 1>
311	1978.5.22.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강별장>
312	1978.5.23.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감목관 김택 2>
313	1978.5.25.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정의 홍형방>
314	1978.5.26.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배질러 벤 당장>
315	1978.5.27.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변만경과 벤줄래>
316	1978.5.29.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김통정 장군 1>
317	1978.5.30.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김통정 장군 2>
318	1978.5.31.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김녕 뱀굴1>
319	1978.6.2.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김녕 뱀굴3>
320	1978.6.6.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원형방과 이좌수>
321	1978.6.7.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홍업선>
322	1978.6.8.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고성목과 산방덕>
323	1978.6.9.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변인태>
324	1978.6.10.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가시오름 강당장>
325	1978.6.12.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심돌 부대각>
326	1978.6.13.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없음>
327	1978.6.14.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날개돋은 밀양박씨>
328	1978.6.15.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닥밭정운디>
329	1978.6.16.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송천총과 부대각>
330	1978.6.17.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당맛당장>
331	1978.6.20.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논하니>
332	1978.6.21.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문만호 며느리>
333	1978.6.22.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심돌 강씨할망>
334	1978.6.23.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없음>
335	1978.6.26.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김씨댁 며느리>
336	1978.6.28.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산호해녀>
337	1978.6.29.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관덕정>
338	1978.6.30.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연북정>
339	1978.7.1.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대림리 바위>
340	1978.7.4.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신선 고장의 개>
341	1978.7.6.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우도 득성이코지>
342	1978.7.8.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개무덤>
343	1978.7.10.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고전적 부친묘>
344	1978.7.11.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오훈장과 정지관>
345	1978.7.12.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현지관>
346	1978.7.18.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매고할망>
347	1978.7.19.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문국성과 소목사>

348	1978.7.20.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대정고을>
349	1978.7.24.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두모와 지미>
350	1978.7.25.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산방산 금장지>
351	1978.7.26.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군산 금장지>
352	1978.7.27.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변댁 입도선묘>
353	1978.7.28.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부댁 도선묘>
354	1978.7.31.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새비육>
355	1978.8.1.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당오백절오백>
356	1978.8.2.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광정당 말무덤>
357	1978.8.4.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노형동 광평당>
358	1978.8.5.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윤남패기 자원당>
359	1978.8.7.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용소와 기우제>
360	1978.8.8.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도채비1>
361	1978.8.9.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도채비2>
362	1978.8.10.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부훈장과 도채비>
363	1978.8.14.	3면	현용준	제주도 전설 <도채비불과 한동리명>
364	1978.8.4.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
365	1978.8.8.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2>
366	1978.8.1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3>
367	1978.8.1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4>
368	1978.8.3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5>
369	1978.9.4.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6>
370	1978.9.5.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7>
371	1978.9.8.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8>
372	1978.9.1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9>
373	1978.9.12.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0>
374	1978.9.14.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1>
375	1978.9.18.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2>
376	1978.9.19.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3>
377	1978.9.22.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4>
378	1978.9.25.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5>
379	1978.9.2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6>
380	1978.10.2.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7>
381	1978.10.5.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8>
382	1978.10.10.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9>
383	1978.10.12.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20>
384	1978.10.16.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21>
385	1978.10.19.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22>
386	1978.10.23.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23>

387	1978.10.2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24>
388	1978.10.30.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25>
389	1978.11.3.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26>
390	1978.11.6.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27-1>
391	1978.11.10.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27-2>
392	1978.11.13.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27-3>
393	1978.11.1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30>
394	1978.11.2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31>
395	1978.11.24.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32>
396	1978.11.29.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33>
397	1978.12.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34>
398	1978.12.5.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35>
399	1978.12.1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36>
400	1978.12.15.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37>
401	1978.12.18.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38>
402	1979.1.1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39>
403	1979.1.29.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40>
404	1979.2.13.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41>
405	1979.2.16.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42>
406	1979.2.22.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43>
407	1979.3.2.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44>
408	1979.3.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45>
409	1979.3.16.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46>
410	1979.3.2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47>
411	1979.3.23.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48>
412	1979.3.2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49>
413	1979.3.29.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50>
414	1979.3.30.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51>
415	1979.4.2.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52>
416	1979.4.4.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53>
417	1979.4.9.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54>
418	1979.4.1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55>
419	1979.4.13.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56>
420	1979.4.1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57>
421	1979.4.18.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58>
422	1979.4.20.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59>
423	1979.4.26.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60>
424	1979.4.2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61>
425	1979.4.30.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62>

426	1979.5.3.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63>
427	1979.5.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64>
428	1979.5.9.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65>
429	1979.5.1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66>
430	1979.5.15.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67>
431	1979.5.18.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68>
432	1979.5.2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69>
433	1979.5.24.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70>
434	1979.5.29.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71>
435	1979.5.3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72>
436	1979.6.4.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73>
437	1979.6.1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74>
438	1979.6.15.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75>
439	1979.6.19.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76>
440	1979.6.25.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77>
441	1979.7.2.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78>
442	1979.7.6.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79>
443	1979.7.9.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80>
444	1979.7.13.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81>
445	1979.7.1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82>
446	1979.7.23.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83>
447	1979.7.25.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84>
448	1979.7.2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85>
449	1979.7.30.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86>
450	1979.8.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87>
451	1979.8.3.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88>
452	1979.8.6.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89>
453	1979.8.8.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90>
454	1979.8.10.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91>
455	1979.8.13.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92>
456	1979.8.15.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93>
457	1979.8.1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94>
458	1979.8.20.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95>
459	1979.8.22.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96>
460	1979.8.24.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97>
461	1979.8.2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98>
462	1979.8.29.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99>
463	1979.8.3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00>
464	1979.9.3.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01>

465	1979.9.5.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02>
466	1979.9.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03>
467	1979.9.10.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04>
468	1979.9.12.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05>
469	1979.9.14.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06>
470	1979.9.1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07>
471	1979.9.19.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09>
472	1979.9.2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10>
473	1979.9.24.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12>
474	1979.9.26.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14>
475	1979.9.28.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15>
476	1979.10.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16-1>
477	1979.10.4.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18-1>
478	1979.10.8.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19-1>
479	1979.10.10.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20-1>
480	1979.10.12.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16-2>
481	1979.11.2.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17>
482	1979.11.5.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18-2>
483	1979.11.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19-2>
484	1979.11.9.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20-2>
485	1979.11.12.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21>
486	1979.11.14.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22>
487	1979.11.16.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23>
488	1979.11.19.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24>
489	1979.11.2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25>
490	1979.11.23.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26>
491	1979.11.26.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27>
492	1979.11.28.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28>
493	1979.11.30.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29>
494	1979.12.3.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30>
495	1979.12.5.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31>
496	1979.12.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32>
497	1979.12.10.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33>
498	1979.12.12.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34>
499	1979.12.14.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35>
500	1979.12.17.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36>
501	1979.12.19.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37>
502	1979.12.21.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38>
503	1979.12.24.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39>

504	1979.12.26.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40>
505	1979.12.28.	4면	서재철	한라산의 꽃 <141>
506	1979.3.2.	4면	고봉식	아이누족 형적과 영향 <1>
507	1979.3.5.	4면	고봉식	아이누족 형적과 영향 <2>
508	1979.8.15.	5면	김찬흡	항일학생운동과 교육구국 <1>
509	1979.8.17.	4면	김찬흡	항일학생운동과 교육구국 <2>
510	1979.8.20.	5면	김찬흡	항일학생운동과 교육구국 <3>
511	1979.8.22.	5면	김찬흡	항일학생운동과 교육구국 <4>
512	1979.8.27.	5면	김찬흡	항일학생운동과 교육구국 <5>
513	1979.8.28.	5면	김찬흡	항일학생운동과 교육구국 <6>
514	1979.8.29.	5면	김찬흡	항일학생운동과 교육구국 <7>
515	1979.7.25.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1>
516	1979.8.1.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2>
517	1979.8.8.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3>
518	1979.8.15.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4>
519	1979.8.22.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5>
520	1979.8.29.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6>
521	1979.9.5.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7>
522	1979.9.12.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8>
523	1979.9.19.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9>
524	1979.9.26.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10>
525	1979.10.2.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11>
526	1979.10.9.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12>
527	1979.10.17.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13>
528	1979.10.25.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14>
529	1979.10.31.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15>
530	1979.11.7.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16>
531	1979.11.14.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17-1>
532	1979.11.21.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17-2>
533	1979.11.29.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19>
534	1979.12.5.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20>
535	1979.12.12.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21>
536	1979.12.19.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22>
537	1979.12.23.	5면	진성기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23>
538	1979.11.19.	4면	김종업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역사적 측면에서 <1>
539	1979.11.21.	4면	김종업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역사적 측면에서 <2>
540	1979.11.23.	4면	김종업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역사적 측면에서 <3>
541	1979.11.26.	4면	김종업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역사적 측면에서 <4>

542	1979.11.27.	4면	김종업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역사적 측면에서 <5>
543	1979.11.28.	4면	김인제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윤리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1>
544	1979.11.29.	4면	김인제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윤리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2>
545	1979.11.30.	4면	김인제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윤리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3>
546	1979.12.3.	4면	김인제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윤리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4>
547	1979.12.4.	4면	김인제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윤리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5>
548	1979.12.5.	4면	김인제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윤리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6>
549	1979.12.6.	4면	김인제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윤리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7>
550	1979.12.7.	4면	김인제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윤리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8>
551	1979.12.10.	4면	김인제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윤리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끝>
552	1979.12.11.	4면	현용준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민속을 통해서 <1>
553	1979.12.12.	4면	현용준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민속을 통해서 <2>
554	1979.12.13.	4면	현용준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민속을 통해서 <3>
555	1979.12.14.	4면	현용준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민속을 통해서 <4>
556	1979.12.17.	4면	현용준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민속을 통해서 <5>
557	1979.12.18.	4면	현용준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민속을 통해서 <끝>
558	1979.12.19.	4면	강경선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풍토적 측면에서 <1>
559	1979.12.20.	4면	강경선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풍토적 측면에서 <2>
560	1979.12.21.	4면	강경선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풍토적 측면에서 <3>
561	1979.12.24.	4면	강경선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풍토적 측면에서 <4>
562	1979.12.25.	4면	강경선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풍토적 측면에서 <5>
563	1979.12.26.	4면	강경선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풍토적 측면에서 <끝>
564	1979.12.27.	4면	김영돈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민요를 통해서 본다 <1>
565	1979.12.28.	4면	김영돈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민요를 통해서 본다 <2>

3-2. 필자별 정리

필자	집필 주제 건수	기사 주제
김태능	7	최부의 표해록
		최부의 표해록<2>
		김비의 일행의 류구 표류와 견문
		반(反) 청한인들이 제주 표착

		해상사고로 본 청국과 제주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삼포왜노의 횡행과 목사 장림의 제주방어시설
진성기	4	오돌또기와 김복수
		제주 민속지
		제주민과 민요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홍순만	3	제주유적 1번지
		제주 원주민은 어디서 왔나
		비
현용준	2	제주도 전설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민속을 통해서
강경선	1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풍토적 측면에서
고봉식	1	아이누족 형적과 영향
김영돈	1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민요를 통해서 본다
김인제	1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윤리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김종업	1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역사적 측면에서
김찬흡	1	항일학생운동과 교육구국
문선희	1	고성과 삼별초
서재철	1	한라산의 꽃
송상일	1	우리 것의 재조명
신근철	1	제주 감귤의 사적 고찰
오성찬	1	제주도민의 얼
윤양섭	1	제주도민의 종교관
조남권	1	도해록
제주대 문화재연구회	1	성산읍 오조리
현길언	1	제주민의 의식 구조

3-3. 연재 분야별 정리

연재분야	건수	연재 주제
역사	15	최부의 표해록
		최부의 표해록<2>
		김비의 일행의 류구 표류와 견문
		반(反) 청한인들이 제주 표착
		해상사고로 본 청국과 제주
		김만덕의 생애와 행적
		삼포왜노의 횡행과 목사 장림의 제주방어시설
		제주유적 1번지
		제주 원주민은 어디서 왔나
		비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역사적 측면에서
		항일학생운동과 교육구국
		고성과 삼별초
		제주 감귤의 사적 고찰
		도해록
민속	9	오돌또기와 김복수
		제주 민속지
		제주민과 민요
		사라져가는 제주 풍물
		제주도 전설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민속을 통해서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민요를 통해서 본다
		우리 것의 재조명
		제주도민의 얼
인문	5	아이누족 형적과 영향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윤리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제주도민의 종교관
		성산읍 오조리
		제주민의 의식 구조
자연	2	탐라정신의 연구 지상 세미나-풍토적 측면에서
		한라산의 꽃

Ⅳ. 연구 의견 수렴

■ 연구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언론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꾸려 3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함. 자문위원은 언론학 교수와 박사, 언론계 실무자 등 총 4명으로 구성함.

■ 자문위원들은 원문 스캔과 OCR 처리, 메타데이터 입력,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학술·정책·교육용 아카이브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함.

■ 자문위원들은 저작권 문제 해결을 연구 추진의 우선 과제로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원전 보유 언론사와의 협약 체결, 공개 범위 및 사용료 합의, 공공저작물화 가능성 검토를 병행할 것을 권고함.

■ 자문은 연구 결과를 정책적 산출물(자료집, 정책 제안서)과 대중을 향한 콘텐츠(디지털 아카이브, 교육자료, 영상 등)로 연결하는 전략을 강하게 권장함. 특히 향후 세미나를 통해 제주도의회 및 행정기관에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자문위원들은 필자 인물연구, 주제별 심층 분석, 담론 변화 추적 등을 후속 연구 과제로 제안함. 또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언론인 재교육과 제주학 대중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자문과정에서 제기된 원본 이미지, 저작권 협의 내용 등 민감정보는 연구 수행 단계에서 엄격히 비공개로 관리되어야 함. 연구진은 자료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외부 공개 시에는 권리 소유자와의 협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공개해야 함. 연구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에는 출처와 저작권 상태를 명시하여 오용과 오해를 방지해야 함.

Ⅴ. 결론 및 시사점

■ 이번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① 제주학의 형성 과정은 신문을 매개로 한 사회적 지식 생산 과정이었음.

② 지역 신문은 제주학 연구 초창기 역사, 민속, 언어, 자연, 인문 등 분야별로 내용적 근간을 확립한 학문적 장이었음을 확인함.

③ 지역 신문을 활용한 학문활동은 제주학 연구 확산과 대중화의 기반이 됨.

④ 이러한 신문 기반 연구는 오늘날 제주학 디지털 아카이브 및 융복합 연구정책으로 계승되어야 할 것임.

■ 제주학 연구의 지속성과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문기사 원문에 대한 체계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시급함. 현재 제주도서관이 보유한 자료는 결호가 많고 열람 접근성도 낮아, 자료의 장기 보존과 활용성을 위해 단계별 아카이브 전략이 필요함.

■ 각 단계는 제주학 연재 기사 원문 디지털화 및 메타데이터 입력 → 기사 원문을 OCR(광학문자인식) 처리하여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디지털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제주학 연구 플랫폼 개설 등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제주학 관련 언론 기사를 제주학 디지털 아카이브의 한 분류체계로 포함시켜 학술연구, 정책, 교육 자료로 확장 활용해야 함.

■ 제주학 신문 연재의 핵심은 필자 개인의 학문적 기여와 지역 지식 공동체의 형성에 있음. 따라서 제주학 형성기의 필자군(김태능, 박용후, 홍정표, 진성기, 부종휴, 현용준, 홍순만 등)을 대상으로 한 인물 연구도 병행되어야 함.

■ 수집된 연재 기사들은 제주학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귀중한 1차 사료이자, 지역 담론의 변화를 반영하는 텍스트임. 따라서 기사 텍스트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내용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지역학 연구는 단일 학문이나 단일 기록매체에만 의존하지 않음.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신문, 방송, 온라인 플랫폼, SNS 등 다양한 매체가 학문적 기록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는 저널리즘 연구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분야임. 이에 제주학 연구의 미디어 활용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 신문 아카이브 연계 학문적 플랫폼화
- 제주 지역 신문에 축적된 기사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학문 연구용으로 제공
- 제주 지역 방송의 과거 다큐멘터리, 뉴스를 수집하여 시청각 아카이브 확대
- 구술사와 연계한 영상 기록 연구 추진
- 신문기사 기반의 인터렉티브 지도 제작을 통해 시기별 지역 변화 시각화
- 신문 연재 기사 기반의 제주학 교육 교재 개발
- 주요 기사와 인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시 및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주제발표 2

보는 아카이브,
찾는 역사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이 현 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장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보는 아카이브, 찾는 역사
국립중앙도서관 이현주

목 차
Korean Newspaper Archives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검색
100년전 오늘
브라우징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 기반 탐색
신문 트렌드
신문 연대기
주제관계 서비스
2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국립중앙도서관

Korean Newspaper Archives

개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지식자원을 **수집.보존**하고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통해 지식의 나눔과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국가대표도서관**

소속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 도서관법
핵심목표(2024~2028)
- 국민의 지적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서관
- 국가지식자원의 보고로서의 도서관
- 국내외 도서관계를 선도하는 도서관
- 유연한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자원 분배

사명

국가지식문화유산을 전승하고, 국민의 지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며, 국가 및 세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

비전

지성과 문화로 세계를 잇다.

5대 핵심 가치

활용성	국가지식자원은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
신뢰성	국가지식자원은 높은 신뢰성을 담보한다.
포용성	국가지식자원의 차별 없는 접근을 제공하며, 디지털격차를 해소한다.
전문성	우리 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계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지속가능성	우리 도서관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3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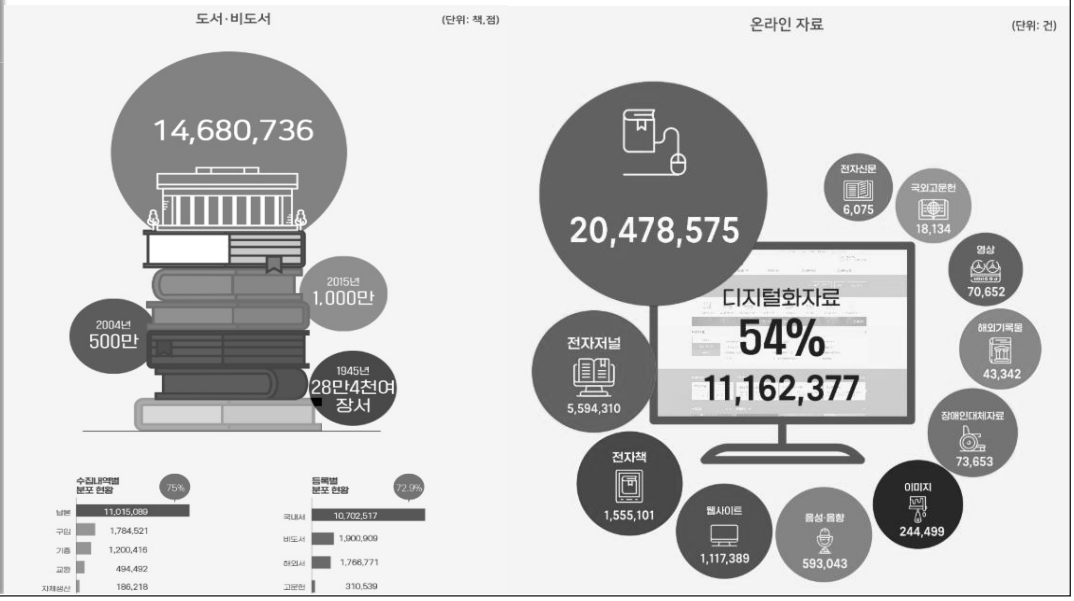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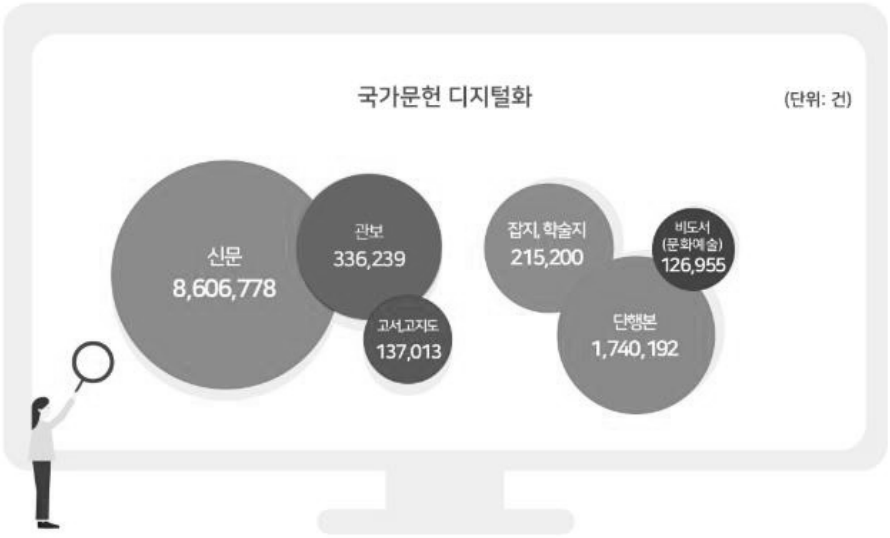
소장자료 현황

Korean Newspaper Archives



디지털화 현황

Korean Newspaper Archives



국가지식자원 공유서비스

Korean Newspaper Archives

근거

- 「저작권법」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1항, 제3항에 따라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 도서관 보상금(원문 열람/출력 저작권료)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

협약도서관 현황

구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	작은도서관	해외도서관	계
협약도서관 수	986	368	3,232	507	887	175	6,155

협약절차

신청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신청 도서관	신청 도서관
도서관부호 발급신청	도서관부호 발급승인	기관정보 등록 및 서비스 이용 신청	서비스 이용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신문 디지털 아카이브

Korean Newspaper Archives

대상

- ✓ 1883년 한성순보 ~ 1960년까지 발행된 신문
- ✓ 대부분 저작권 만료 자료
- ✓ 대부분 유. 일. 본.

7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디지털화

Korean Newspaper Archives

이미지 구축
- 이미지 스캔
- 이미지 보정(가독성)
- 이미지 점검

↓

작업대본 수기마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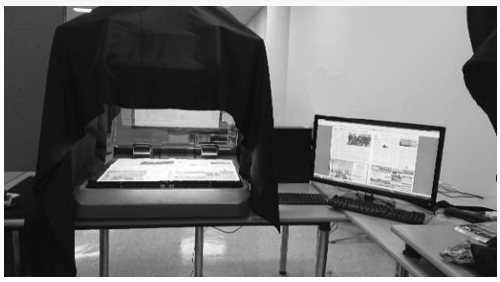
입력
- 기사영역마킹
- 메타데이터 기사
- 제목/색인어

↓

전거정보 구축

↓

검증(품질 ·연동점검)



8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디지털화_작업대본 수기마킹

Korean Newspaper Archives

이미지 구축
- 이미지 스캔
- 이미지 보정(가독성)
- 이미지 점검

↓

작업대본 수기마킹

↓

입력
- 기사영역마킹
- 메타데이터 기사
- 제목/색인어

↓

전거정보 구축

↓

검증(품질·연동점검)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디지털화_입력

Korean Newspaper Archives

이미지 구축
- 이미지 스캔
- 이미지 보정(가독성)
- 이미지 점검

↓

작업대본 수기마킹

↓

입력
- 기사영역마킹
- 메타데이터 기사
- 제목/색인어

↓

전거정보 구축

↓

검증(품질·연동점검)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디지털화_입력

Korean Newspaper Archives

이미지 구축
- 이미지 스캔
- 이미지 보정(가독성)
- 이미지 점검

↓

작업대본 수기마킹

↓

입력
- 기사영역마킹
- 메타데이터 기사
- 제목/색인어

↓

전거정보 구축

↓

검증(품질 ·연동점검)

구분	메타데이터 항목		내용	비고
종정보	신문명		신문의 명칭	
	권정보		소장기관 소장을 위한 책단위 권정보	
	간행빈도		간행주기	
	언어		신문발행 언어	
호정보	발행호명		신문의 발행호수	
	발행년월일		신문의 발행일자(서기)	
			신문의 발행일자(기타-Other Day)	檀紀, 昭和 등
	발행요일		신문의 발행요일	
	발행지		신문이 발행된 지역	
	발행처		신문을 발행한 곳	
	호별 면수		발행호별 면수	
기사정보	기사명		신문기사의 제목	
	저자		기사와 함께 표출된 해당기사의 저자	
	기사 유형	주제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스포츠, 학술	
		장르	기사, 광고, 알림, 소설, 논설, 사진, 기고, 날씨, 시외신, 만화, 수필	
		지역	국내, 국외, 국내외	
	위치 정보	면	해당 기사의 지면 위치	
		단		
	색인어		인명. 지명, 단체(기관)명, 사건	

11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디지털화_입력, 전거정보 구축

Korean Newspaper Archives

이미지 구축
- 이미지 스캔
- 이미지 보정(가독성)
- 이미지 점검

↓

작업대본 수기마킹

↓

입력
- 기사영역마킹
- 메타데이터 기사
- 제목/색인어

↓

전거정보 구축

↓

검증(품질 ·연동점검)

12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디지털화_검증(품질·연동점검)

Korean Newspaper Arch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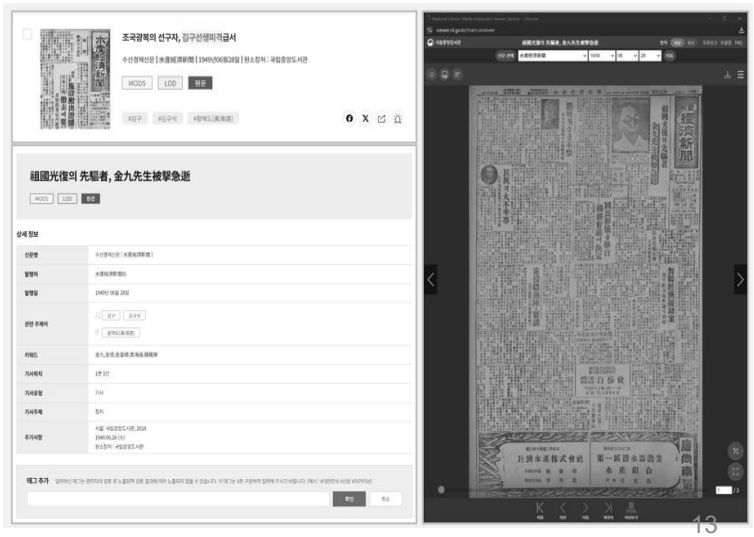
이미지 구축
- 이미지 스캔
- 이미지 보정(가독성)
- 이미지 점검

작업대본 수기마킹

입력
- 기사영역마킹
- 메타데이터 기사
- 제목/색인어

전거정보 구축

검증(품질·연동점검)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디지털화_검증(품질·연동점검)

Korean Newspaper Arch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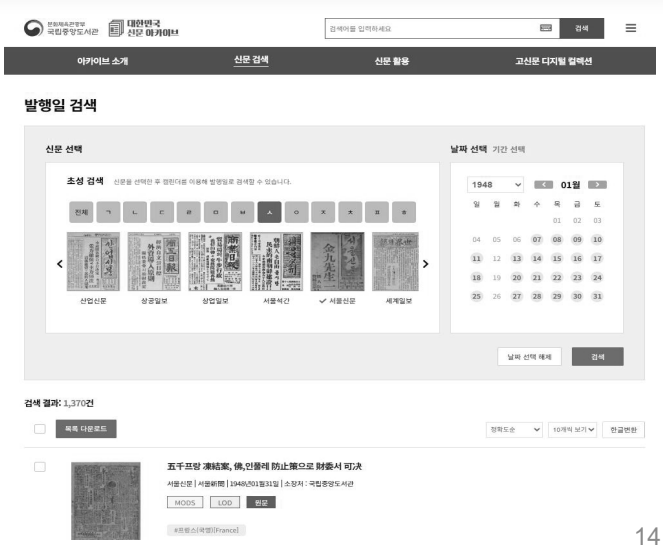
이미지 구축
- 이미지 스캔
- 이미지 보정(가독성)
- 이미지 점검

작업대본 수기마킹

입력
- 기사영역마킹
- 메타데이터 기사
- 제목/색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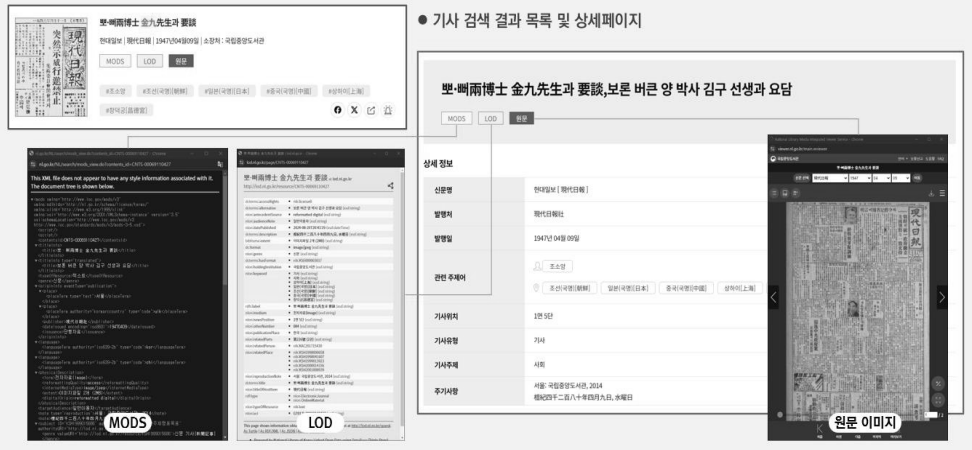
전거정보 구축

검증(품질·연동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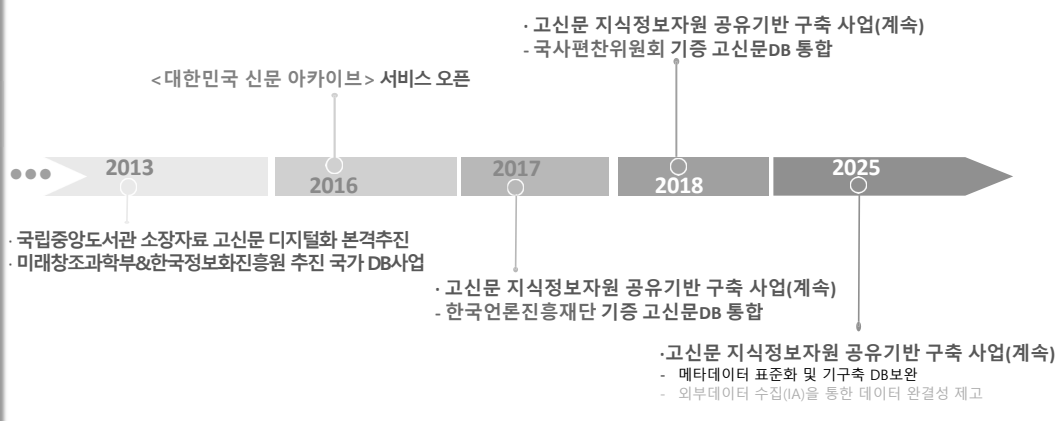


디지털화_검증(품질·연동점검)

Korean Newspaper Archives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연혁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현황

Korean Newspaper Archives

신문소장 6,500여종

디지털화

- ✓ **대상** : 종.폐간 귀중본, 종.폐간 1960년 이전 발행 신문
- ✓ **원문 구축** : (신문) 107종, (기사) 8,643,757 건 (약 80% 완료)
- ✓ **색인 구축** : (주제어) 34,166건

소재	인명	단체	장소
17,007건	9,217건	2,242건	5,694건

- ✓ **LOD 구축**
  -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LOD 다운로드**

    전체 신문아카이브 LOD (데이터 생성 시점 : 2024-07-18, 데이터 건수 : 8,541,786 건, 파일크기 : 1.2GB)
  - **· 고신문 디지털 컬렉션 LOD 다운로드**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의 고신문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에서 적용되고 있는 시대별/주제별 신문기사에 대한 RDF 데이터셋 파일(TTL 형식)을 제공합니다.

17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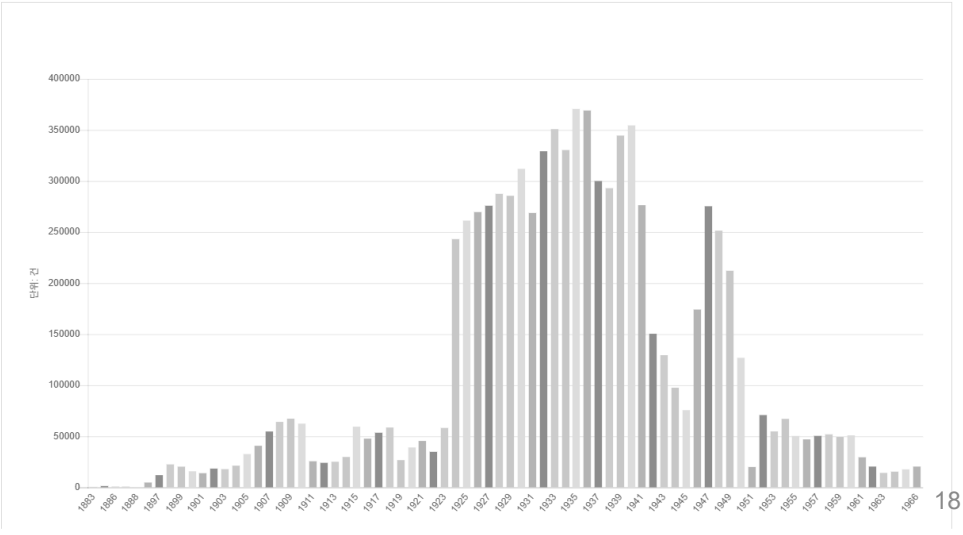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현황

Korean Newspaper Archives

발행년도 통계

엑셀 다운로드



18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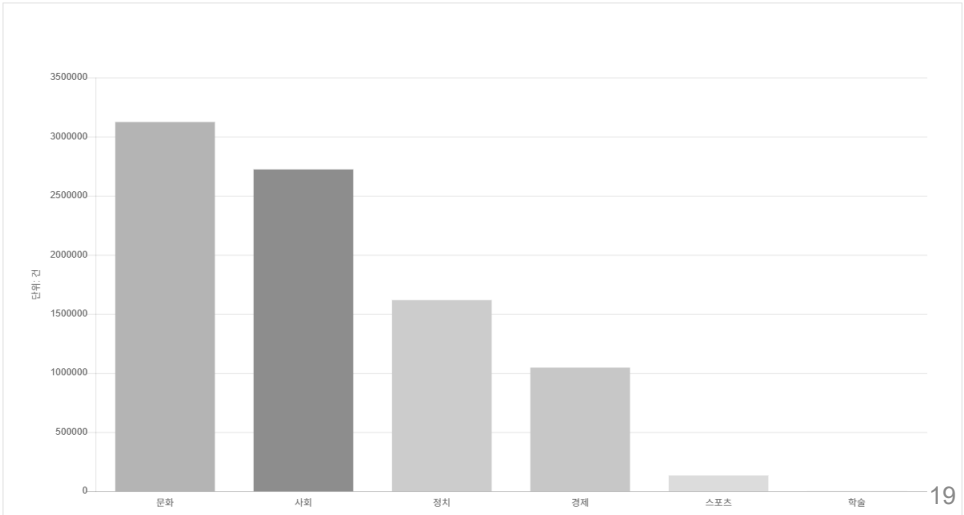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현황

Korean Newspaper Archives

기사 주제 통계

엑셀 다운로드



19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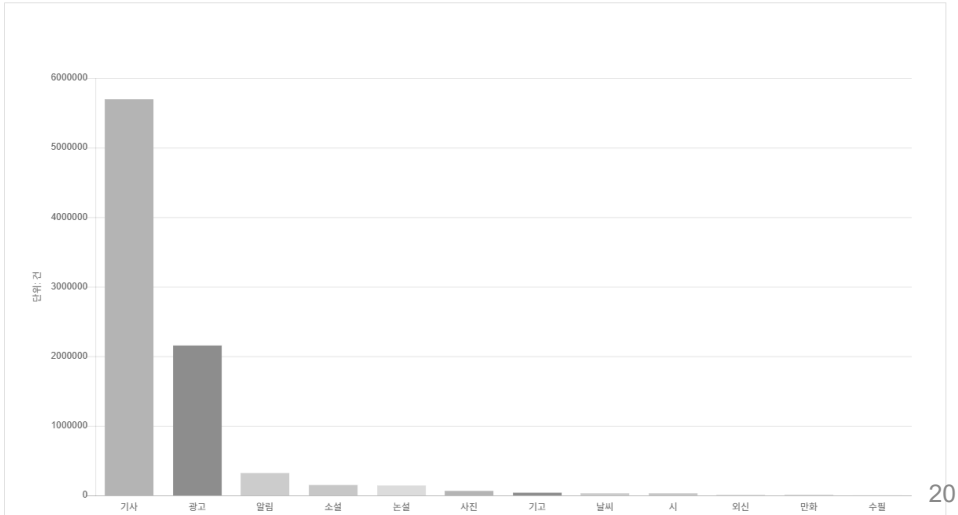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현황

Korean Newspaper Archives

기사 유형 통계

엑셀 다운로드



20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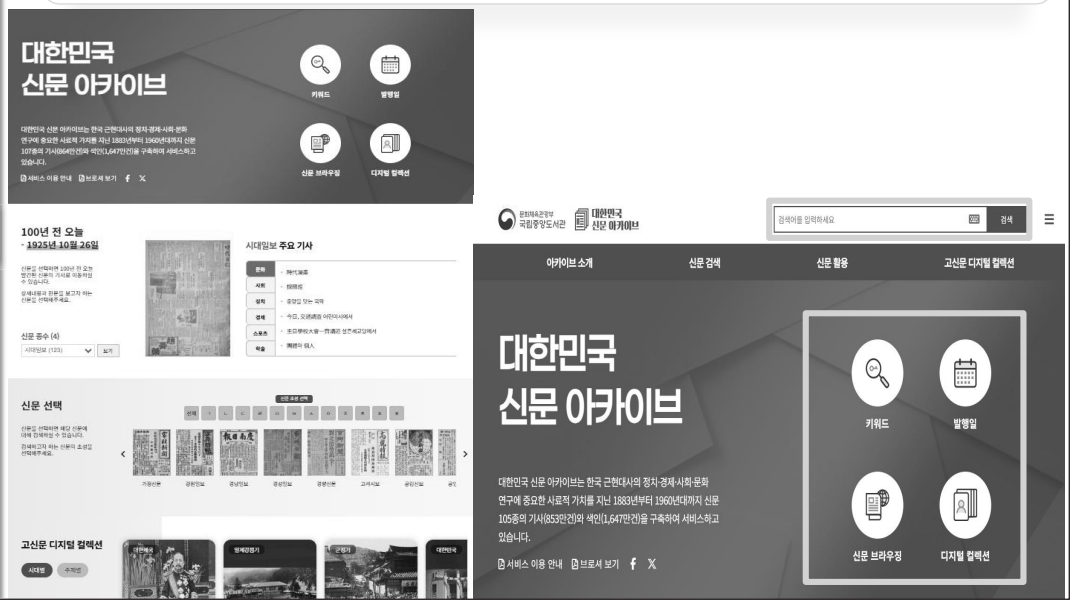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서비스(http://nl.go.kr/newspaper)

Korean Newspaper Archives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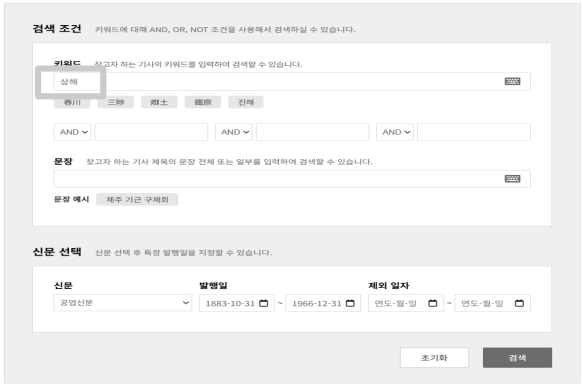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서비스

Korean Newspaper Archives

■ 신문검색_키워드 검색

: 찾고자 하는 기사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

키워드 검색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서비스

Korean Newspaper Archives

신문검색_발행일 검색

: 신문 선택 후 발행일 혹은 발행기간으로 검색

발행일 검색

23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서비스

Korean Newspaper Archives

100년 전 오늘

100년 전 오늘

- 1925년 08월 30일

신문을 선택하면 100년 전 오늘 발간된 신문의 기사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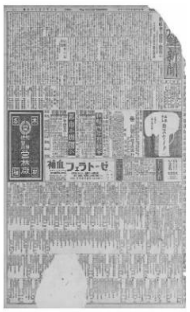
상세내용과 원문을 보고자 하는 신문을 선택해주세요.

신문 종수 (5)

조선신문 (317)

보기

- 시대일보 (205)
- 매일신보 (117)
- 경성일보 (229)
- 조선시보 (126)
- 조선신문 (317)



조선신문 주요 기사

문화	・治外法權問題を關稅會議に提議
사회	・討議範圍決定
정치	・鮮滿財界の大勢(中), 鈴木鮮銀總裁の演述
경제	・鮮銀援助
스포츠	・農會令は農業自治の促進
학술	・小包輸出入救

24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서비스

Korean Newspaper Archives

주간/월간 인기기사

: 접속한 일자에 발행된 신문기사 및 인기기사 제공

주간 인기 기사

1	중외일보[中外日報]	扇風機病
2	독립신문[영문][獨…	The croakers may croak and the pessimists may grow…
3	매일신보[每日申報]	竹史李應魯氏書畵展覽會 來月十二日(日曜) 全州公會堂…
4	한성순보[漢城旬報]	안남이 프랑스와 和議하다
5	매일신보[每日申報]	城北町會에서 國語夜學講習

월간 인기 기사

1	독립신문[영문][獨…	The croakers may croak and the pessimists may grow…
2	한성순보[漢城旬報]	안남이 프랑스와 和議하다
3	중외일보[中外日報]	扇風機病
4	수산경제신문[水産…	올림픽準備委員會發足, 委員長에 金信淳氏決定
5	독립신문[서재필][…	본문 일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서비스

Korean Newspaper Archives

신문 브라우징

: 주제, 유형, 소재, 인명, 단체, 장소 분류 – 다양한 기사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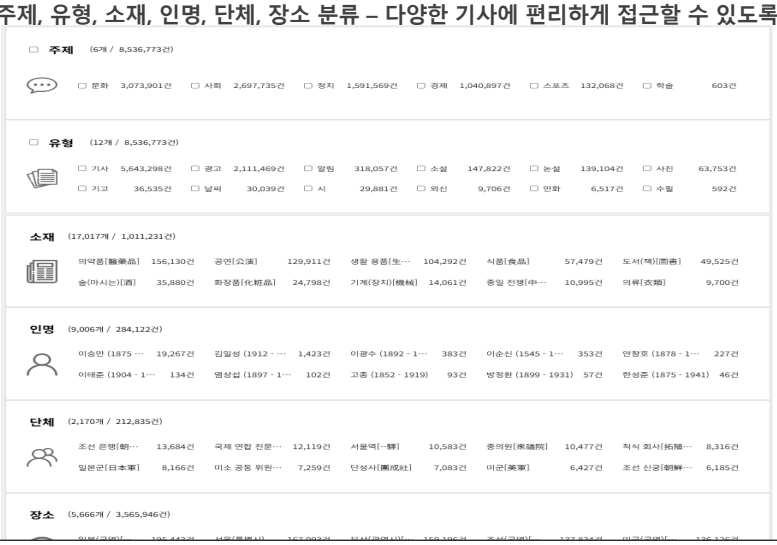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서비스

Korean Newspaper Archives

신문 브라우징

: 주제, 유형, 소재, 인명, 단체, 장소 분류 – 다양한 기사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서비스

Korean Newspaper Archives

해제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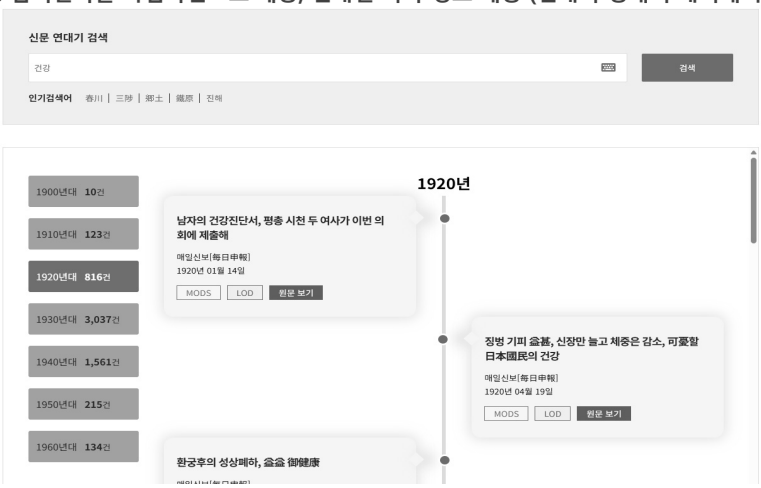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활용

Korean Newspaper Archives

신문 연대기

: 검색결과를 타임라인으로 제공, 연대별 기사 정보 제공 (연대기 형태의 네비게이션 기능)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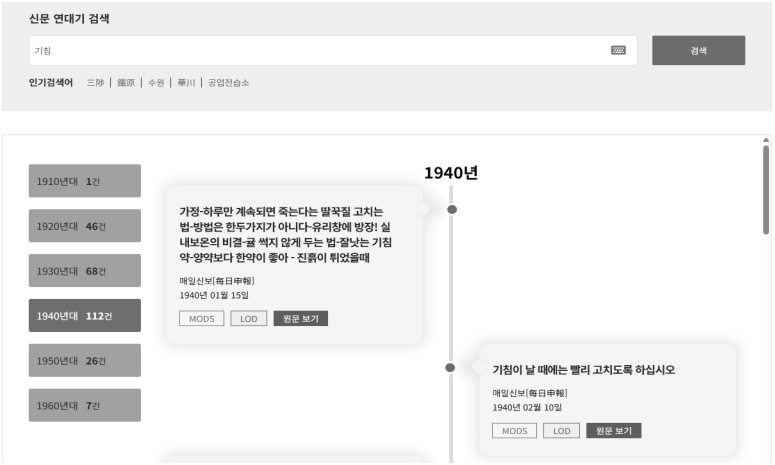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활용

Korean Newspaper Archives

신문 연대기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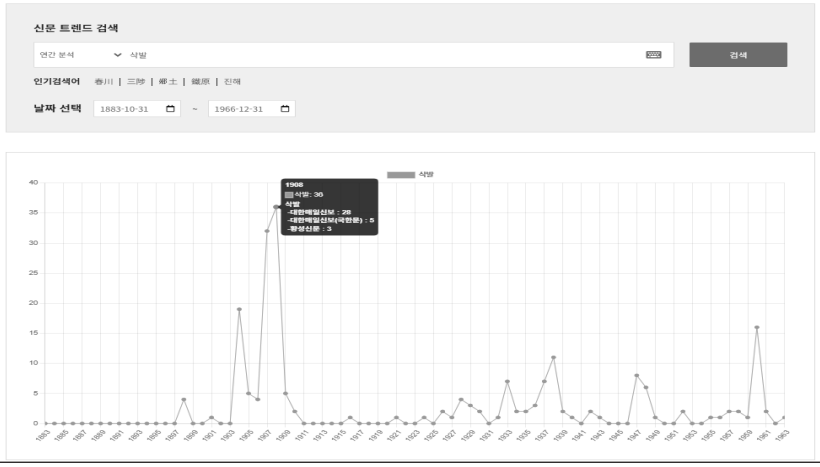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활용

Korean Newspaper Archives

신문 트렌드

: 검색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 건수를 연도별 그래프로 제공

신문 트렌드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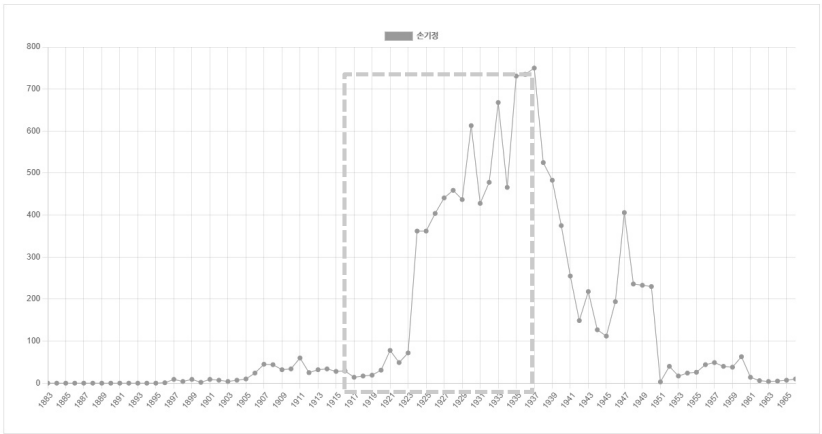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활용

Korean Newspaper Archives

신문 트렌드



키워드: 손기정

검색 결과: 17,220건

목록 다운로드 | 차트 이미지 다운로드 | 그래프 데이터 다운로드

정확도순 | 10개씩 보기 | 한글변환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활용

Korean Newspaper Archives

신문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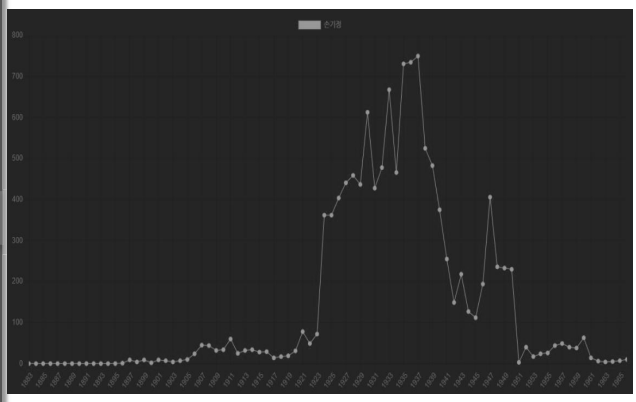


차트 이미지 다운로드 제공

연도	가정신문	강원일보	경남일보	경성일보	경향신문	고려시보	공립
1924	0	0	0	124	0	0	
1925	0	0	0	132	0	0	
1926	0	0	0	130	0	0	
1927	0	0	0	113	0	0	
1928	0	0	0	127	0	0	
1929	0	0	0	119	0	0	
1930	0	0	0	140	0	0	
1931	0	0	0	114	0	0	
1932	0	0	0	132	0	0	
1933	0	0	0	157	0	0	
1934	0	0	0	119	0	0	
1935	0	0	0	160	0	0	
1936	0	0	0	167	0	1	
1937	0	0	0	389	0	1	
1938	0	0	0	242	0	3	
1939	0	0	0	166	0	3	
1940	0	0	0	138	0	0	
1941	0	0	0	96	0	0	
1942	0	0	0	76	0	0	
1943	0	0	0	110	0	0	
1944	0	0	0	58	0	0	
1945	0	0	0	27	0	0	
1946	7	0	0	0	0	0	
1947	15	1	0	0	0	0	
1948	0	1	0	0	0	0	
1949	0	1	0	0	0	0	
1950	0	0	0	0	0	0	

그래프 데이터 다운로드 제공

33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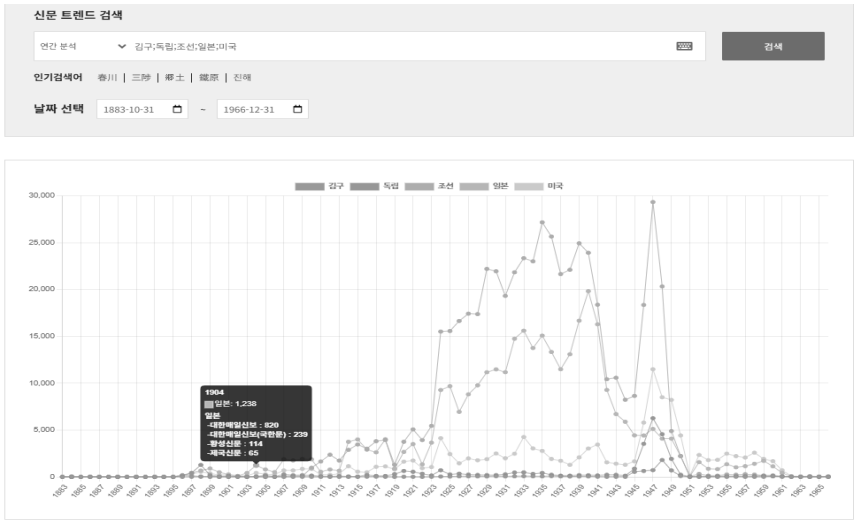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활용

Korean Newspaper Archives

신문 트렌드



34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활용

Korean Newspaper Archives

신문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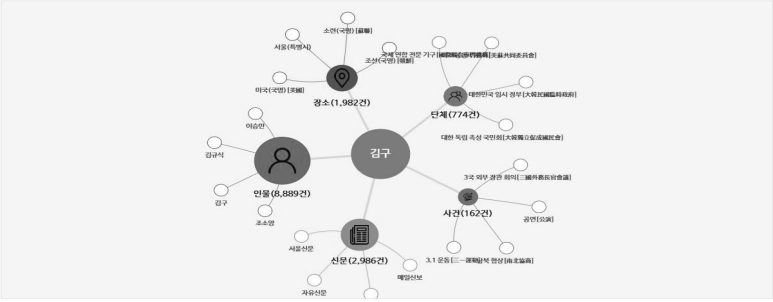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활용

Korean Newspaper Archives

주제관계 서비스 (주제관계도)

: 검색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를 인물, 사건, 장소, 단체로 구분하여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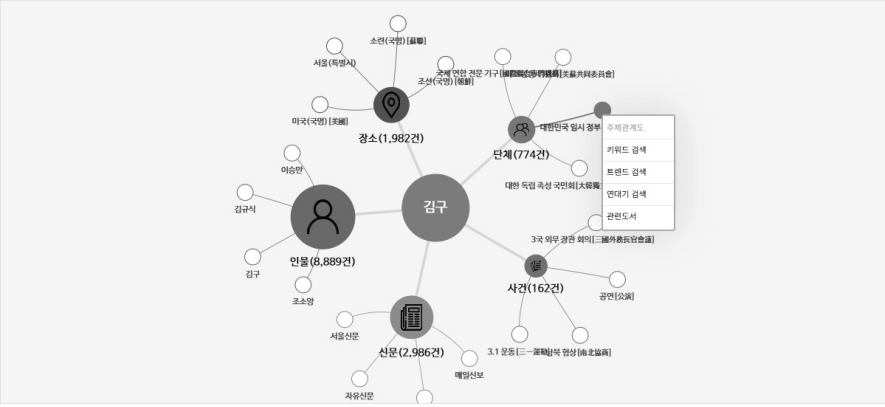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활용

Korean Newspaper Archives

주제관계 서비스 (주제관계도)

: 시각화 제공을 통한 확장검색 가능 -예시) 연관검색어 제공 및 관련도서 검색 가능



37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활용

Korean Newspaper Archives

주제관계 서비스 (주제관계도)

: 주제관계서비스 > 관련도서 선택시, 검색어 자동 검색 – 소장자료 검색으로 연결

38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활용

Korean Newspaper Archives

고신문 디지털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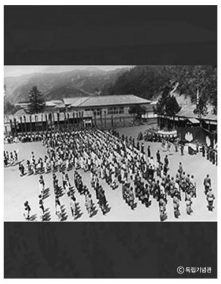
: 고신문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제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LOD 기반 서비스

시대별 컬렉션 주제별 컬렉션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8일까지의 조선의 국명입니다.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 조선의 자주독립과 고종에 대한 환궁 요구가 거세지자 환궁한 고종은...

바로가기 →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일본은 식민지배를 위해 탄압, 영구예속화를 위한 고유성...

바로가기 →

군정기

군정기는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독립이 확정된 한반도를 미군이 1945년 9월 7일부터 1948년 8월 14일 대한민국 정부...

바로가기 →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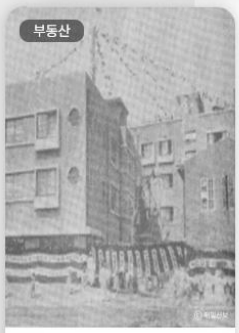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시기부터입니다. 정부수립 후에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 청산, 반공...

바로가기 →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활용

Korean Newspaper Archives



경성 최초의 아파트인
미쿠니 아파트의 모습

쌀값 등락
입장 치

경성 최초의 아파트인 미쿠니 아파트의 모습
이미지 출처 : 매일신보(1936.05.21. 조간3면)

부동산

LOD 데이터 다운로드

21세기인 현재에도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일제강점기에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1920년대부터 급속하게 도시화된 경성은 인구 증가로 교육과 위생 등 주택난과 연관된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대적 아파트들 비롯한 건축물이 대거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건축 열기의 부작용으로 1932년 '경성토목당局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성부는 도시개발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경성(大京城)'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조선의 건축왕 '정세권'이 소규모 개량한옥을 지어 서민들에게 분양했고, '건양사(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지금의 북촌-익선동과 서대문-용산리 일대에 근대 한옥을 대량 보급하여 서민 주거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부동산 컬렉션은 이와 관련된 고신문 기사를 제공합니다.

총 135,139건 (디지털 컬렉션 최종 갱신일 : 2025년 08월 30일)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정치	학술
11,803 건	87,091 건	28,273 건	48 건	7,923 건	1 건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고신문 디지털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시각화기반 탐색

발전과제

종합토론

좌 장

· 양영수(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

토 론

· 최낙진(제주대학교 교수)

· 강문규(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이사/전 한라일보 논설실장)

· 이정효(제주대학교 도서관 학술정보운영실장)

· 임희숙(제주도서관 기획운영실장)

· 김승종(제주일보 논설실장)

MEMO

MEMO

MEMO

▪주제: <1948~1979년 제주학 연재 기사 연구 결과발표 세미나>
▪일시: 2025.10.30.(목) 15:30~18:00
▪장소: 제주연구원 새별오름

[토론 녹취록]
- 기록 시간: 1시간 16분
- 토론 참가자: 좌장-양영수
토론자-최낙진/강문규/이정효/임희숙/김승종
기타-참가자

좌장(양영수):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게 된 양영수입니다. 80분이 토론 시간이어서 괜찮으시다면은 토론자 선생님들이 한 10분씩 토론을 하시고, 질의응답하고 마지막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남은 시간 한에 추가 질문 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작은 제주도서관 임희숙 기획운영실장님이 자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먼저하고 나머지는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자(임희숙): 저는 제주도서관 근무하고 있는 기획운영실장인 임희숙이라고 합니다. 주제발표에서 이정원 박사님이 이 연구를 할 때 가장 현격한 기여가 제주도서관이 하나였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오늘 이 토론회에 참가하라는 센터장님의 명을 받아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해 보면서 저희의 보관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을 센터장님이 저희한테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서관에서 중요한 신문 자료가 [제주신보] 그리고 [제남신문] 그리고 [제주신보]가 [제주신문]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1979년도까지의 중요한 자료들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신보]는 영인본으로 저희가 원본이 없는 이유는 아마 4·3 기록을 조사하면서 4·3위원회에서 국회에 이 자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국회의 자료를 복사한 영인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3년부터 59년 동안에 14건에 대한 부분이 디지털화 돼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아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처럼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스캔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는 정도로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로 되어 있어서 키워드 검색이라든가 연구를 하기 위한 자료들을 디지털 화면에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아마 이정원 박사와 오유정 박사가 몇 개월 동안 저희 도서관에 와서 그 자료를 검색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소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학술적인 부분이나 제주도민에게 이용 접근성을 쉽게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것이 보존 서가에 있는 제본된 신문입니다. 신문 재질이 아시다시피 워낙 산성화 용지로 돼 있어서 저렇게 다 뜯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닐로 씌워서 자체적으로 조금 덜 부식을 방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 보존의 한계를 어떻게 원본을 보존할 것인가, 물론 디지털화가 대안은 되겠지만 그래도 원본에 대한 가치라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인식이 되었습니다. (화면)보시면 저희 도서관 2층 서가에 전시되어 있는 신문 제본들입니다. 아마 이것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셨다고 보입니다.

신문은 크기가 일반 책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서가의 범위를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기에 보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5개 분관이 있거든요. 읍면 지역에 있는 분관에서는 신문의 자료를 다 폐기를 했고요, 지금은 더 이상 보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신문에 대한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한계에 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키워드나 내용 검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들을 투입해서 정리해야 하는데 제주도서관은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입니다.

지자체 도서관처럼 일반 도민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학교 교육에 대한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도민을 위한 신문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산과 젊은 인력의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지자체와는 다른 고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주도서관도 역시 도서관법에 의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 도서관에는 [제주신보]가 1947년 48년의 자료도 디지털화돼 있지만 법에 의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저희 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이지만 여기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중요한 자료들이 제주대학교라든가 신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쳐서 협력적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을 누군가가 담당해야 하는데 오늘 토론회를 만들어준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중심을 잡아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저도 약간은 반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소중한 자료를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역량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 작업이 10주년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노력,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학술적 영역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관심이 깊다 하면 저희 도서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 중점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자료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제주도서관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주 지역 내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도서관에 근무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던져주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서관은 어떤 자료를 보관하고 소장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저희도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양영수): 감사합니다. 제주도서관을 이야기하면서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병원들이 일반 차트에서 EMR 즉 전자 차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차트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 있었거든요. 그 한계에 다다른 것 중 하나가 보통 디지털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디지털화 한후에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많이 편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의 언론 관련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제주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중요성

을 많이 고민하고 토론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설득력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순서대로 해서 최낙진 제주대학교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최낙진): 저는 전공이 언론이고 매체로 보면 신문입니다. 제주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고마운 일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주도서관은 도내 1호 도서관이거든요. 개인이 기증한 것이 있어 의미가 있죠. 미담 같은 그런 얘기인데 제주도서관의 역사는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이정원 박사하고 오유정 박사님보다 전에 가서, 아까 잠깐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던데 [제주신보]에 실린 '독자의 소리'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서 협조도 받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아카이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그때 독자들은 되게 치열했어요. 논쟁도 하고요, 사회참여도 하고요, 약간 진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치열한 공론장이었다, [제주신보] 자체가요. 그리고 [제주신보]가 지금 한 1천호 가까이 결호가 돼 있습니다. 저게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메꿀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제주신보] 하나라도 좀 추가해야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언론사' 과목을 맡고 있어서 저희 학생들이 고신문 쪽에 들어가서 제주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다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순보]도 1건 주보 3건 독립신문들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저희들이 학생들 수준에서 발표도 하고 있고요. 해녀관련 기사도 많고 또 일본 어민들이 출연하는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 받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나오셨으니까 아까 [한성순보]가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다 아실 거지만 부산에서 만들어진 81년도 [조선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죠. 부산에 와 있는 직원인 일본 상공인들이 만든 건데, 거기에 일어하고 한문으로 만든 건데, 내용은 한국어고요. 거기에 한글 기사가 딱 하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기록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 국가로 구분하면 그렇지만 또 숙지주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고 또 원형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정원 박사님하고 오유정 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이 출발점은 아까 전제가 그랬던 것, 그러니까 제주학의 연구의 장으로 자료 원형으로 찾기 때문에 연재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까 신문 기록 아카이브를 보면 기록을 해놓으면 당연히 그냥 자동 검색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예산도 없고 기관도 없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이 정말 고생하셨는데 그 작업을 하면 좀 의미가 좀 달라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라든가 기획부터 신문을 다 처음부터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이 하는 식으로 하면 더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학 연구의 원형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센터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훌륭한 전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작업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크지만 대민 이용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제주대학교의 도서관 역할도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상을 할 때 디지털 아카이브 못지않게 이걸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는 기존의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나 활용됐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저런 자료를 이용해서 그간 얼마나 이용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애쓰게 해놓으셨는데 저 자료를 이용해서 연구자가 이해할 부분들을 이게 아예 처음부터 설계가 됐으면 어떨까, 애쓰긴 했는데 활용이 좀 되어야 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석주명 선생님 얘기를 잠깐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도 석주명 선생님에 대해서 제주도 오자마자 관심갖고 석주명 선생님 제주도 총서 6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주명 선생님이 지역학이라는 말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처음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제2의 연구 분야가 “제주도학”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셨어요. 그 작업으로서 제주도 방언을 먼저 했고요. 제주도 방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비 채집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에서 쓰는 방언을 모아가지고 분류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육지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아랍이나 인도어에 있다 해서 교류의 징표로써 찾아낸 거고, 「생명조사서」, 마을 들어가서 진짜 남매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가계부터 조사를 해서 (정리)했고, 그다음에 문헌 있잖아요. 제주도 관련된 문헌들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관련된 제주도 자료를 다 모아서 「문헌집」을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제주도학”을 열 수 있는 제주학 기초 작업을 다 하셨거든요. 나중에 이 책의 분류 방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석주명 선생님을 - 발표자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어떤 상징으로서 그분에 대한 작업들이 좀 될 수도 있겠다. 기념관은 기념관대로 가더라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장(양영수): 정책의 필요성은 임희숙 실장님하고 똑같이 <제주학연구센터>의 어떤 역할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아카이브에 대한 활용안에 대해서도 연구에서부터 설계가 되면 좋았겠다 라는 말씀, 그리고 끝으로 석주명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제주학의 기초를 (마련한) 이런 상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각별해야 되겠다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강문규 이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강문규): 제가 언론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우선 기대도 있었고 또 의문 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선 1948년부터 1979년이라고 했을 때 1948년, 이것은 어떤 기준인 거예요? 어떤 의미로 시작점을 잡은거죠?

담당자(오유정): 도서관에 있는 게... 처음에는 50년부터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낙진 교수님께서 자문회의 할 때 48년부터 잡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문 자료가 48년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자(강문규): 그 신문이 [제주신보]라고 본다면은 1945년 10월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용이 없더라도 그렇게 잡아가지고 쭉 가고 그랬으면 아무런 의심이 없었을 텐데 48년이라면 해방 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인가 해서...

토론자(최낙진): 제가 그때 자문을, 자문이라고 해야되나... 저희도 가졌던 의문인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48년에 아마 연재가 시작된 해로, 지금 말씀하시는 45년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발표자(이정원): 네~ 석주명 선생님 글이 (연재된 것이) 48년에 있습니다.

사회자(오유정): 그런데 그냥 일반 신문 기사가 아니라 연재를 저희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8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토론자(강문규): 알겠습니다. 저걸(발표자료 화면) 보면서 저도 봤거나 책으로 나왔거나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글들을 많이 썼어도 원고료가 없었어요. 그 원고료를 주기 위해서 한 게 [한라일보]가 생기면서... 홍수만 선생님이 [제주신보]에 원고를 많이 투고를 했었던 분인데 원고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해서 원고료를 얼마라도 드려야 된다 해서 한라일보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게 89년도 4월에 됐으니까 그때부터 원고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정말 중요한 옥고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냥 공짜로 했는데 지금이라도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여하튼 그러면서도 열정을 갖고 했고 그중에 김태능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혼자 국회도서관에 자비로 가서 제주도 자료들을 전부 해(모아)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와서, 그것들이 편해 보이지만 요즘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안 될 정도의 그런 헌신과 제주에 대한 애정과 그런 것들이 합쳐져 그것이(신문 연재가)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인물도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굴된 자료 못지않게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 가득한 자료를 보면서도 감동이 있게 되죠. 그런 건 나중에 (활동한) 김봉옥 선생과 같은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김태능 선생과 같은) 1세대 연구자들에게는 거의 뭐 일상적인 일이었죠. 그러면서도 그런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데 어쨌든 저는 79년도까지 보면, 제주학이 태동하는 그런 기준으로 잡았다고 이렇게 설명돼 있는데 그것은 핑계인 것 같고 별 의미가 없어요. 제주학 태동기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볼 때는 다음에 나올 89년도 그다음 90년도 제민, 제주, 한라 이렇게 그때 어느 부분에서 명분을 상실해서 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밝혀야 돼요. 어느 신문만 해버리면 지금 경쟁하는데 어느 신문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뭐 했느냐는 것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90년대 초반에는 언론 3사가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을 할 때 내일 대서특필을 할 기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온건해져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 작업이 의미가 있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라도 이걸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 센터에서 밝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맞고, 예산 확보가 아직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가려는 것은 나중에 상당히 지적받을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라일보에 있으면서 연재하는 것들 때문에 많이... 최낙진 교수님이 많이 격려도 해주셨지만은 한라산 답사를 한 260회 정도 연재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15명 정도의 연구자들을 같

이 대동하고 한라산 탐색하고 그걸 통해서 책 30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파가 굉장한데 그 다음에 [제민일보]가 4·3으로 했잖아요.

사실 4·3이 먼저 신문 창간보다 그때 [제주신보] 당시에 그것이 먼저 우리보다 창간 두 달 앞두고 그것이(4·3) 연재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후발주자라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나온 얘기도 그랬지만 나중에는 한라산 대탐사 때도 그런 게 영향이 있었어요. 우리도 큰 대하 연재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경쟁심도 있었는데, 지금 (보듯이) 저런 신문 발전은 혼자 있을 때는 발전이 잘 안됐어요. 경쟁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이겨내려면 특별하고 또 대단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분발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연재들이 경쟁이 되어 막 생겨나면서 이론이 활성화는 되는데, 기자들은 좀 힘들죠. 그런 가운데서 3사 경쟁이 그렇게 또 번져나가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말씀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언론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은 하나 제주도 제주사회 연구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했었던 것이 도청에서 나오는 《제주도》지 그것을 우리가 뺄 수가 없어요. 그게 1962년도에 창간되어 지금까지 나오거든요. 초기에는 신문이라는 것은 한 면 해봐야 얼마 안되는데 저기(《제주도》)에는 잡지이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을 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태민 선생 이런 분들이 전부 거기에 투고를 했었던 분들이고 한데, 그 책이 전국적으로 볼 때도 가장 빠른 시기에 나온 책이에요. 《현대문학》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해인가 나왔는데 그때는 제주도 필진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전국에 서정주 선생님 이런 분들까지도 다 《제주도》지에 냈고, 또 민속적인 거 이런 것들을 했었기서기 때문에 외국 대학에도 이게 보내졌었어요.

우리나라 국회도서관 이런 데는 당연히 보냈고 모든 대학에 보냈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안 오면 왜 이 책이 안 온다고 하면서 막 그냥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제가 언론사에 가기 전에 도청에서 그 책 만드는 일을 담당했었어요. 그 책에 대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차라도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책 내용까지 정리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목차 정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1호부터 해서 지금 한 135호 정도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목차만 하더라도 상당하죠. 다행히 책들이 지금 있으니까 (목차가 있으면) 그때 필요한 것들을 빨리 찾아내기 쉽죠. 검색을 해서 그 자료들을 확인하면 되니까. 그 당시 그 역할들을 어쨌든 《제주도》지가 기관지로서 하지 않고 종합지적인 성격을 띠었어요. 이게 행정은 물론이고 아까 문예 같은 경우도 했고, 또 시론 또 학술적인 이런 부분까지 다 다뤘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장(양영수): 강문규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이사님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의 가치 되게 중요한 부분도 같이 아카이빙 되었으면 하는 의견 그리고 향후 과제로 제주 언론사들 발전이 경쟁에서 시작된 것에 대해서 향후 과제에 대한 문제도 주셨고,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이 우리 제주 1세대 연구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좀 관심갖고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정효 제주대학교 도서관 학술정보운영실장님 부탁드겠습니다.

토론자(이정효):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도서관 이정효입니다. 저희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1966년도에 “제주향토자료실”이라는 자료실을 개시하면서 제주 관련 주제 또는 제주 출신의 필자나 발행처가 있는 관련된 저작물을 모두 모아서 수집하고 집서해 왔습니다.

물론 제주대학교 연구저작물은 당연하고요. 그 외에도 제주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저희들이 어디든지 달려가서 발굴하고 수집해 왔는데요. 아까 행사 모두에 연구자분께서 연구개요를 말씀하실 때 저희가 살짝 죄송했어요(스크래치가 났어요). 사실 [제남신문] 1950년대 부분은 저희가 결호인 게 맞고요, 그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고 싶었지만 좀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계속 연구작업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대 도서관에도 [제남신문] 1947년 1월부터 48년 4월까지는 소장하고 있고요.
중간에 소장이 끊겼지만 [제주신문]은 1962년부터는 쭉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남신문]이나 기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결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소장해 온 자료들을 이제 보존과 활용이라는 이 대립되는 가치를 어떻게 동시에 실현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자료의 디지털화였고요, 그 작업을 2019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 발견된 신문 자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제주도의 각급 학교에서 발행되는 문예지 창간호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마을지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문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신문 얘기를 할 텐데요. 저희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디지털 변환을 아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서관에 원고를 읽을 스캐너가 없다보니까 외주를 줘서 그걸 구축을 하고 약 한 20만 6천여 건 정도 구축을 했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가 또 추가 사업비를 받아와서 이 자료를 전자책 형태로 볼 수 있게끔 구축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 제주도서관에서 소개해 주셨던 (제주대학교의) “제주메모리”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강문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쟁이 발전을 도모해 준다고 하셨듯이 어쩌면 저희 제주도서관이 먼저 제남신문 50년대 것들을 구축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자료를 소장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실물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하자는 자극을 받게 되어서 이걸 하게 된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아까 사례도 얘기하셨지만 앞서 하고 계시는 코리안메모리 사업이라든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 제주대학교도 제주라는 키워드 가지고 우리 걸 해보자라고 많은 자극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제주메모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자료들에 대한 운영 사례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실물 자료든 디지털 자료든 이용에 있어서 우선 첫째로는 제주대학교의 연구자나 또 최낙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학생들의 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지역의 현직 사학자나 제주학에 관심을 두시는 많은 분들의 방문시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역 신문사의 경우 강문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빈번한 회사명이 개칭된다거나 제호가 개칭된다거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연속적으로 자기(신문사의) 자료조차도 셀프 아카이빙이 안 돼 있는 신문사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분들이 무슨 무슨 신문 몇 월호가 필요해서 신문사에 전화했더니 제주대 도서관으로 연락하라고 하더라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하면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우리 자료를 소중히 지켜야겠다 라는 그런 자극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증거 능력으로서의 신문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인해 달라, 작고한 부모님

의 사고 관련 기사 같은 것들을 알려달라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이런 사례도 좀 있는데요. 신문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특정 이미지를 찾아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삽화나 만화나 만평이나 이런 걸 그리셨던 분들이 당시에는 무명작가셨는데 최근에 아주 거장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아니신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어떤 예술가의 스토리텔링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앞서 제주도서관에서 제주대학교 도서관의 자체 정책 때문에 이걸 오픈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신문을 업무상 발행된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표 70년 이후에야 저작권 프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을 못하는 자료들이 있고요. 물론 [제남신문] 1947년, 48년 이런 자료들은 관계없지만 65년 이후 자료들은 개방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대학교 내의 IP 대역에서만, 특정 PC에서만 이걸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저작권이 해결되는 자료부터 누구나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시도록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자료들을 전자책 형태로 보실 수 있게 해서 키워드 검색이 다 될 수 있게 하고는 있는데, 한글 가로쓰기를 한 문서들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키워드 검색도 되고. 그런데 세로쓰기로 되어 있는 국한문 혼용의 세로쓰기로 되어있는 것들은 아직도 그 OCR 그러니까 광학 문자 인식 기능으로 구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희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신문 자료와 그와 연계된 우리 대학의 다른 소장 자료들을 연계한 주제전시나 큐레이션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앞서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경쟁,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쟁과 함께 앞으로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과도 그렇고 제주학연구센터와도 그렇고 또 제주도서관과도 그렇고 함께 협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좀 같이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양영수): 고맙습니다. 이정효 제주대학교 도서관 학술정보운영실장님, 상당히 도민들에게 좋은 검색 서비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책 제안의 장인지, 제주대학교 도서관의 자랑의 장인지 하다가 우리 이제 마지막에 같이 협력하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네요!

토론자(이정효): 참고로 아까 《제주도》지 기사색인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물론 원문 구축은 안 돼 있지만 기사단위, 아티클 단위로 검색은 가능하십니다.

좌장(양영수): 제가 제주대학교 도서관 관계자분하고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대학은 대학인 것이 학생(교육), 연구...그런 연구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역할이 크다는 것을 느꼈었는데, 그런 (도민들의 민원해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또 쉽게 찾아가서 도움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자(최낙진): 이정효 선생님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좌장(양영수):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이정효 선생님의 노하우를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김승종 제주일보 논설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김승종): 제주학 관련 세미나라고 해서 과연 어떤 건가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자부심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끼는 자리가 됐습니다. 강문규 선생님께서 왜 1948년부터 1979년까지냐 하면서 [한라일보]가 빠진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자부심을 느끼지만 오늘 참 우리 신문(제주일보)의 민낯이 드러나서 너무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선 제주도서관하고 제주대학교 도서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는데 저희 [제주신보]가 1945년 10월 1일 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고 지방지로는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신문이 1945년 또 이제 1950년 초반에 왜 신문이 결호가 있느냐 하면 4·3 때 많이 손실됐고 6·25 때 보존이 똑바로 안 되면서 그렇게 해서 많이 손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문사에 그 신문 원본이 없느냐... 저희에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3년에 제안이 왔어요.

원본을 보내주면 디지털화하려고 하는데, 돈을 얼마 주겠다, 관리를 잘해주겠다고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우리가 보관했던 신문을 전부 다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민들이 우리) 신문사에 전화를 하는데 제주대학교 도서관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그쪽으로 좀 문의를 하십시오 하면서 우리 실무자가 말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끄럽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전에 우리 강문규 선배님께서도 (아시겠지만) 3사(社) 체제 때 기획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자발적인 기획 연재들을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워낙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또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3사의 경쟁 체제가 (아니고) 신문의 어떤 질적 경쟁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기획 연재하는 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그쪽과 연계해서 한마디로 취재가 (일종의) 광고인 그런... 취재 보도 비용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기획 보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자발적인, 예를 들어서 4·3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4·3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도 우리 [제주일보]의 부끄러운 민낯인데, [제주일보] 사태를 겪으면서 당시 [재민일보]가 그때 분리되어 나가면서 4·3 자료를 전부 갖고 갔어요. 도둑질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제주일보)는 자료가 없고 모든 자료를 그때 [재민일보]가 가져가서 (신문사의) 출발을 했던 겁니다.

(재민일보가) 결과적으로는 잘 기획을 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연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강문규 선배님도 [한라일보]는 이제 다른 기획을 하고 [제주일보]는 또 다른 기획을 하는데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문의 질이 좋아지고 또 제주 관련 어떤 발굴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주학연구센터>의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좀 제주학이 체계화되는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지난 3월인가요?

기획 주제 1건, 자율 주제 4건 해서 제주학 연구비 및 총서 출판비 지원 공모 관련 기사를 오늘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주학연구센터>는 어떤 (제주학 연구의) 체계화를

시키고 언론과 연결을 시킨다면 신문, 방송, 인터넷 전부 괜찮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주제를 매해마다 대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언론사 공모를 하든 아니면 언론사 마다 나눠서 분담을 시키든가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면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보니까 이 제주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냥 제주의 모든 것, 제주의 뿌리부터 미래까지 그러니까 강문규 선배님이 아까 (말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제주학이 정리될 테니까 참석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칠 때 어떤 주체가 주도하고 기획하고 이걸 실행에 옮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컨트롤 타워가 어디가 될 것이냐? <제주학연구센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제주문화원, 영상문화진흥원.... 무슨 기관... 또 예를 들어서 향토요리도 제주학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부분들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제주도청의 관련 부서에서도 어떤 전담팀이라든지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선 제주도서관을 상당히 칭찬을 했는데요. 하나 개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발표 자료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일 처음이요. 저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일반 도민이나 연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 화면에 띄웠던 부분 있잖아요. (네 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존경하는 강문규 선배님 아니면 잘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1964년에 [제주신보]와 [제남신문]이 합쳐져서 [제주신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면 출처가) [제주신문]은 1963년부터 하고 2017년 1월, 2020년 12월까지 48번(기사검색 숫자)이 있잖아요. 저기 써 있는데 (후반의) [제주신문]은 (앞부분과) 같은 [제주신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부분(동일한 출처로 표시된)은 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996년 10월에서 이제 1996년 이후에 넘어오는 [제주일보]가 밑에 [제주신보]가 [제남신문]이랑 합치면서 [제주신문]이 됐고, [제주신문]이 (화면의)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보이는 [제주일보]와는 같은 뿌리다. 그리고 이제 저쪽(화면)에 2017년부터 2019년에 폐간한 [제주신문]은 같은 신문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견을 별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자(강문규): 저기 보다 보니까 잠깐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제남신문]이 1967년에 창간을 해서 1980년에 (신군부에 의해) 폐간이 됐는데, 그때 [제남신문]에 아주 쟁쟁한 필력을 가진 기자들이 많이 거기 포진돼 있었어요. 우선 편집국장이 「오름나그네」를 썼었던 김종철 선생이 편집국장이었고, 그 밑에 부장으로 강용삼, <제주의 인맥> 또 나중에는 「대하실록 제주백년」이라는 책을 쓴 분이 거기에 있었고, 또 이문교라고 (제주발전연구원) 원장을 하셨고, MBC보도국장을 오래 하셨던 분이 그쪽에 계셨고, 또 오성찬 선생이 또 거기(제남신문)에 있었죠.

그분들이 (제남신문에 있으면서) 하나씩 주제를 맡았어요. 그래서 오성찬 선생은 제주향사, 나중에 그게 마을 시리즈들로 나오게 된 그런 역량이 그때 비축된 거고, 또 김종철 선생도 (오름관련) 글들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필력이 좋은 분들이 [제남신문]에 계셨는데, [제남신문]이 주 2회 신문을 만들다가 일간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건(일간지 전환) 이문교 선생의 「제주언론사」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주신보]에서 훼방을 해가지고 (일간지 발행)심사는 됐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가지고 (제주신문으로) 합병이 된 것은 강제적으로 중앙(정

부)에서 합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폐간사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문 닫아버렸대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그때 당시에 전두환 시절 또 그 앞에 있었던 (박정희) 시절에는 언론자유와 관련한 무지막지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어쩌면 그분들이 차라리 신문사에서 나온 것이 더 잘된 일일지도 몰라요. 자유스럽게 자기 쓰고 싶은 글을 쓰면서 제주도에 아주 큰 족적을 남겼죠.

토론자(김승종): 그 [제남신문]하고 저기 나온 [제남신문]하고 또 다른 거고...

토론자(강문규): 그거는 80년대에서 통합된 거고 나중에 [제남신문]은 일간지가 아니라 주간지죠.

좌장(양영수): 이렇게 해서 김승종 제주일보 논설실장님 끝으로 이제 토론자분들의 1차 토론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을텐데 먼저 하시려는 분이 계셔서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타(참여자1): 최낙진 교수님이 제가 <제주학연구센터>에 근무할 때에 아카이브를 맡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연구자가 시간은 아까운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게 이거는 완전히 노동이죠. 연구는 머리에서 하는 건데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집에 앉아서도 <제주학연구센터> 아카이브에 올라온 '돌'을 치니까 돌하르방에 대한 자료들이 다 올라와서 굳이 제주도 도서관에 안 가도 그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아이고 그래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1948년~1978년 기사를 정리를 하셨는데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거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연구물, 이 글이 얼마나 연구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자료냐 이런 것을 선정하여야 되지 않았느냐, 저는 제주학 관련 연구 모델 다 데이터베이스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된 자료들이 단행본으로도 나오고 다 이분들의 업적으로 이제 여기 신문을 안 봐도 정리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언론홍보니까 신문 기사를 정리를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으면 이것은 좋은 연구 자료를 연구하는 거예요. 제주학이라는 것은,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제주학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고가 엄청 많았는데 정말 이 젊은 연구자들을 이런 작업을 하도록 놔둬야 될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고요. 저는 아카이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카이브를 안 봐요.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킬러 콘텐츠를 키워야 되겠다. 제주에서는 어떤 게 킬러 콘텐츠냐 저는 그것은 정책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요즘 돌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돌 문화를 중요시하고, 그러면 돌 문화를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그 자료도 축적해 줘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이것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아카이브를 한번 해본 사람으로서 연구자로서의 연구 자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쉽게 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대국민 홍보가 한다면 뭔가 킬러 콘텐츠가 없으면 누가 여기 들어와서 오겠습니까? 제주학 아카이브가 제가 하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뭔가 새로운 전환과 목적, 이것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맨날 자료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

예요. 그래서 젊은 연구자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해야 될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수고가 많았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일을 하기 쉽지 않지만 서재철 선생님인 경우는 이것들이 계속 아카이브에도 올라가 있고 이 신문에 있는 거 굳이 안 하더라도 서재철 선생님의 사진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과 내가 남은 시간에 어떤 일을 해서 제주 사회에 봉사를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고 많았습니다. 참 수고 많았는데 제 느낌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좌장(양영수): 예 고맙습니다. 특별한 별도의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 의견을 듣는 걸로...네 고맙습니다.

기타(참여자2): 좌혜경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노고는 많았는데 연재 기사들은 대체로 김태능, 현용준 선생님의 경우에는 책으로 출간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다른 기사들이 디지털화돼서 이게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정원 선생님이 계약 기간 끝나가지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김완병 센터장님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제 시작도 안했는데 그것을 양영수 의원님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만하라고 이제 이상한 생각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주로 문학 쪽하고 사상 쪽 기사를 검색하러 제주도서관 20년 전쯤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없는 거 보니까 53년 11월부터가 있는 거고 그전에 자료들은 없어서 제주신문사 제주신보사 제주일보사 자료실에 가서 직접 다 봤어요. 52년 1월부터 다 있더라고요.
그 행방을 김승종 실장님에게 묻고 싶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 갔다는 거죠. 그게 빨리 환원돼서 제주도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메모도 하고 디카로 찍어놓고 한 것들 일부 기사들은 있는데 실제 언론학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 논문이 쓰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빨리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문 자료가, 조선왕조실록이 디지털화 되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나오고 있듯이 제주 지역의 신문 자료들이 사건, 문학 기사 또 광고 등등 해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인데 이게 디지털화 되면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보면 서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립중앙도서관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이제 시작이니까 이종원 선생님 내보내지 말고 (웃음) 더 인력을 보강해서 해야지 이렇게 한 번 하고말고... 사실 연재물들은 다 나온 거거든요. 일반 사건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좌장(양영수): 고맙습니다. 마찬가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것은 마무리 하지만은 끝난 게 아니다, 정말 제주를 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디지털화해서 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의견을 듣고 도에서도 위축 연구원님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적극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기타(참여자3):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물리학과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1년 연구년을 받아서 지금 제주대학교에 내년 8월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기사 보다가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석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임희숙 선생님이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과 연관된 도서관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대전에 생활기

록부 있잖아요, 그걸 다 디지털화하는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하우가 지금 꽤 축적이 돼 있어서 아마 디지털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미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하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배포해서 사람들이 참고하고 할 때는 조선왕조실록이나 그동안 인문학 신문한다고 여러 가지 예전에 자료 번역하고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쪽을 잘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이용하기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여기 와서 몇 달 지났는데 제가 몰랐던 것도 많고 제주도하고 연관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초중고를 졸업했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자료가 어느 정도 동문회 차원에서 학교 홍보도 있고 그러니까 좀 (연구가)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스쳐 지나가는 분들 있죠. 물론 석주명 선생님처럼 진짜 갑자기 대단하신 분은 스쳐 지나갔지만 엄청나게 뭔가 마련해 놨는데 그런 분 말고 그 분야 사람이 아니면 제주하고 연관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유배왔던 분들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오히려 근현대인이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분야별로 예를 들면 저는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물리학에서도 제주 출신인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 꽤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당도서관에서 뭘 하나 냈더라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은퇴하신 어떤 교수님이 예전에 연구 환경이 아주 안 좋던 시절에 대학원생들 데리고 한라산에 와서 지대가 높으니까 우주에서 나온 입자 이런 걸 측정해서 어디 학술지에 내고, 그분이 자기 글에다 그런 걸 써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학문 분야 내지는 아까 광고, 영화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분야별로 제주와 연관된 인물들 이런 것을 제주에서 태어났거나 제주와 깊은 연관이 아니더라도 제주도를 스쳐 지나갔던 인물을 포함해서 뭔가 하면은 조금 좀 제주학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한편으로 제주가 규모가 작은 게 지금 디지털화하거나 아까 같은 그런 제주학을 연구하는데 오히려 장점이 되지 않을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그거(디지털화) 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제주는 오히려 양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선구자가 되어 타 시도한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장(양영수): 고맙습니다. 제주와 연관된 제주도를 알리는 데 도움 주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정말 그러면 제주가 더 풍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있으십니까?

기타(참여자4): 저는 제주도 근현대를 공부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강문규 선생님께서 《제주도》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주도》지가 1962년에 첫 창간호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전혀 다른 성격이긴 합니다. 61년도에 516 쿠테타가 일어난 이후에는 그냥 기관지처럼 볼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제주도》지는 문예지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학술지 성격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발표할 어떤 잡지도 없었던 상태에서 《제주도》지는 그 모든 걸 통괄할 수 있는 유일한 잡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DB화하는 데 저는 너무나도 찬성

하는 입장이고,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그 자료를 보려고 하면 꼭 도서관으로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왔던 내용은 신문이지만 신문 아카이빙 계속 다른 데서도 하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에서도 하고,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여러 기관 단체에서 아카이빙하는 단체도 많은데 제주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주자료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시지만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아까 다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제주자료관이 제주학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는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각 분야에 계신 담당자분들께서 협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자(강문규): 응원 부대도 왔기 때문에 제가 힘 받아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이브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킬러 콘텐츠하고도 관련된 부분일 수 있는데, 《제주도》지를 제가 10년 동안 편집을 했었어요. 기획 전부를 했는데 도제 40주년 되는,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 얘기인데 내년이 80년이니까 40년 전에 그걸 '도정 40년' 또 '사진으로 본 도정 4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집 하나를 만들었고 그 책도 만들었어요. 처음에 사진집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뭐 한 10장 정도로 해가지고 옛날하고 지금 발전상 비교하는 사진도 좀 넣어야 되겠다 했는데 가 보니까 그냥 아주 쌓여 있는 거예요. 곰팡이가 아주 잔뜩 낀 채! 그래서 뒤지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게 이게 50년대 사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으니까, 도청이니까 이게 만약에 사라지면 옛날에 살기가 흔하던 시절도 아니고 불과 뭐 제주도에 몇 사람 정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인데, 제주도에 이 사진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래서 그 사진을 전부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이게 사진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10페이지 정도 사진집을 만들려고 했던 게 160페이지로 확대시켜 사진집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니까 본책은 사람들이 구할 생각 안 하고 사진집만 구해달라고 막 달려 들어가지고 전국에서, 기관에서도 막 그냥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다 보내고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파급 효과가 뭐냐 하면은, 모든 시군에서 사진집을 다 따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육청은 상하권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그다음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오성찬 선생이 '사진으로 본 제주 100년'이라는 책을 만들고, 또 강영봉 교수 팀 저도 그때 참여했습니다만, 상하권으로 해가지고 아주 두꺼운 책 만들고. 그 하나가 사진집의 영향이 제주도 최초의 사진집 열풍을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그때! 제주 사진을 건진 게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제주도》지를 아카이빙하면) 그런 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도 할 수 있는데 다음에 뭔가 이익을 낼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좌장(양영수): 이제 약속한 시간이 돼서 50분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2분 정도 초과를 했는데요, 원래 좌장 시작 전에 발제하신 분들에 감사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못 드려서요. 우리 이종원 오유정 위원님 정말 사비를 출연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제부터 또다시 시작이니까 그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기획과장님 마지막 발전 과제 5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안 돼 있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자료 조회가 안 돼요. 법률 조회가 안

되고, 화재 때문에 그렇잖아요. 화재나 이런 장애 대책이 혹시 지금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되게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발표자(이현주): 저희는 원래 정부 방침은 국정 자원으로 모두 가는 게 정부 방침인데 저희 국립중앙도서관은 워낙 지금 가지고 있는 소장 자원의 양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게 변경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콘텐츠는 거기 가 있는 건 없고요. 그래서 저희 스토리지가 이중화되어 있고 백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정장처럼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 전체가 다 이중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예산적인.. 다만 콘텐츠는 백업이 돼서 분산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장(양영수): 분산되어 있고 이중화된 것도 혹시 분산되어 있는가요?

발표자(이현주): 서버는 이중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원래 완벽한 이중화는 이 서비스가 끊어지면 바로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로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스토리지와 이 콘텐츠를 보존하는 서버 이런 부분들은 백업과 이중화가 되어 있어서 콘텐츠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좌장(양영수): 어떤 곳에 가 보면은요. 이중화가 되어 있는 데까지 잘했는데 같은 곳에 이중화돼 있는 거죠. 이거는 이중화가 아닌 거라서 그런 부분까지 이중화를 좀 고민해 주시면 정말 소중한 자료들이... .

발표자(이현주): 저희가 분관이 세종에 지역 분관이 있고요. 서울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분관이 있고, 지금 평창에 국가문헌보존관을 별도로 지금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받고 예산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창에 국가문헌보존관이 건립 완료가 되면 거기 데이터 센터도 들어올 거라서 저희가 지역적으로도 분산 보존할 겁니다.

좌장(양영수): 감사합니다. 궁금했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소중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좌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김완병): 예 장시간 토론자님, 발표자님 고생하셨습니다. 토론에서 제안하신 것들은 잘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종 논설실장님께서 제주학이라는 범위가 뿌리에서부터 미래까지라는 그런 범위를 잘 새겨가지고 제안하신 것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 <제주학연구센터>가 어려운 게 아카이브도 중요하지만 원천 자료를 다 확보하는 데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주어 사전 제주어 대사전의 소재 발굴이라든가 노동력 내지는 해녀 관련하고, 역사 분야에 있어서도 특히 호적중초 인물사 이런 부분들도 다 아카이브을 하기 위해서 원천 자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과 인력 특히, 이종원 박사님은 나가지 않을거고 보안 문제 노출돼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야 되는데. 오늘 지적하신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피드백 되도록 해서 또 지역에 있는 아카이브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제주학연구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차근차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오유정):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해주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후속 연구와 정책 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녁 식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차로 약 5분 거리에 카페드콜리에서 진행 진행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식사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끝>.

요약

○ 임희숙 - 제주도서관에는 중요한 신문 자료를 소장하고는 있으나 체계적으로 아카이빙이 되어 있지는 않다. 학술적 지원이나 제주도민의 이용 접근성에 대해 물리적 원본 보관과 디지털화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작업처럼 개인적 역량 또한 중요하다는 점과 자료들을 홍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자리였다. 그 중심을 <제주학연구센터>가 해주길 기대한다.

○ 최낙진 - 제주도서관은 [제주신보] 분석을 위해 방문하여 협조를 받아 고마운 마음과 직접 보느라 고생해서 아카이브가 되면 좋겠다. 국립중앙도서관 학부 수업에서 고신문 아카이브를 잘 활용하고 있다. 제주학 연구의 장으로 자료 원형을 찾기 위해 두 연구원이 신문 연재 기사를 직접 조사하느라 고생했다. 그러나 자료에 대한 아카이브의 처음 설계에서부터 기획과 예산을 그리고 활용안까지 정책적으로 계획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석주명 선생님에 대해 환기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학”이란 표현을 썼고, 제주 방언이나 제주 자료 문헌 등 제주학 기초 작업을 한 셈이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이런 상징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 강문규 - 제주 1세대 연구자는 제주에 대한 헌신과 애정을 갖고 글을 썼으니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제주 신문사들이 기획 연재처럼 경쟁에서 발전이 시작되었으니 어느 한 곳이 아닌 다 아카이브가 되어야 한다. 또한《제주도》지는 1962년 창간된 기관지이나 종합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므로 아카이빙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이정효 -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향토자료실’을 운영하여 제주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제주신문도 결호는 있으나 소장하고 있다. 보존과 활용이라는 대립되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제주메모리”라는 디지털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여 전자책 형태로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 제주도서관, 제주학연구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 김승종 - [제주신보]는 4·3과 6·25를 거치면서 결호가 생겼고, 신문 원본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 이관하여 없는 상태이다. 정리된 연재 기사를 보니 기획 연재들이 경쟁적으로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오늘과는 다르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언론과 연결하여 제주학 정립하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